Entertainment p/18

이병헌 "아내에게 평생 빚"

metro®

메트로 2015년 2월 27일 금요일 제3164호 www.metroseoul.co.kr

Sports p/20

손흥민 이번엔 특급도우미

本道현대 外道신세계

유통재벌 3세 엇갈린 행보 p/12

정지선, 유통채널 다각화 올인
정용진, 술 이어 항공사업 기웃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간통죄 위헌 5466명 "만세" p/23

"토요타, 한국서 가장 존경 받는 브랜드 될 것" p/10

나경원, 헌정 사상 첫 여성 외교통일위원장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에 26일 나경원 새누리당 의원이 선출됐다. 외교통일분야 상임위 위원장에 여성 의원이 선출되기는 나 의원이 헌정 사상 처음이다.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낙선한 뒤 국회를 떠나 있던 나 의원은 지난해 재보궐 선거를 통해 국회에 재입성했다.

나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실시된 국회 외통위원장 보궐선거에서 총 투표수 208표 중 176표를 얻어 위원장에 올랐다. 여당 몫인 외교통일위원장 자리는 유기준 위원장이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지명으로 공석이 됐었다.

국회 외통위원장으로 선출된 나경원 새누리당 의원. /연합뉴스

나 의원은 당선 인사에서 "우리 외교가 녹록지 않다. 정부와 국회가 소통과 협업을 통해 여러 가지 산적한 현안들을 풀어가겠다"며 "남북관계를 풀어 나가서 통일의 초석을 놓는데 국회가 앞장서도록 노력하겠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서 10년간 미뤄온 북한인권법도 반드시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이보다 앞서 오전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진행된 외통위원장 후보 당내 경선에서 총 135표 중 92표를 얻어 43표를 얻은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을 압도적 표차로 누르고 후보자리를 거머쥐었다.

/정윤아기자 yoona1@

안철수의 각별한 '김영란법' 관심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전 대표(오른쪽)가 26일 국회에서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찾아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통과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안 전 대표는 이날 같은 당 우윤근 원내대표에게도 협조를 요청했다. 안 전 대표는 당초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처리해 줄 것을 원하고 있다. /연합뉴스

귀국한 오세훈도 정치활동 기지개

최근 귀국한 오세훈(사진) 전 서울시장이 정치참여 가능성을 시사해 주목된다.

오 전 시장은 26일 방송에서 구체적인 정치참여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정치적 책임은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다만 "아직 직접적 참여까지는 생각지 않고 있다"며 자세한 언급을 피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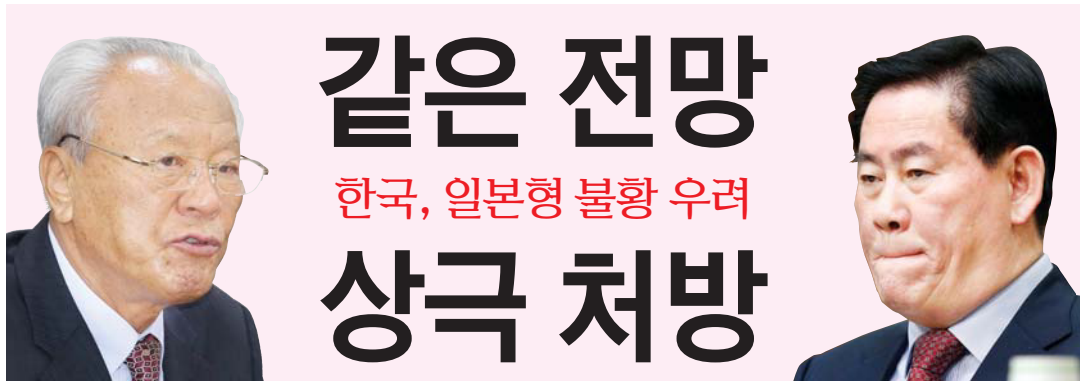
서울시장 재임 시절 무상급식 논란 당시 나온 대선불출마 선언과 관련해 '대선에 대한 의지가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당시에 (제가) 무상급식을 가지고 주장을 굽히지 않으니까 저것이 대선을 위한 전략이 아니냐는 식의 공격이 많았다"며 "정말 사심 없이 하는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거라는 차원에서 대선은 절대 나가지 않는다고 입장을 정리했던 것"이라고 답했다.

오 전 시장은 2011년 서울시장 재임당시 선별적 무상급식에 대한 주민투표 무산 책임을 지고 시장직을 사퇴한 바 있다.

오 전 시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지역구 감축, 비례 2배 확대'라는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큰 틀에서 고뇌는 이해하지만 올바른 방향은 아닌 것 같다"며 "이번 개정안은 왜 바꿨는지에 대한 고민이 부족한, 철학이 부재한 개정안"이라고 말했다.

/정윤아기자

같은 전망 상극 처방

한국, 일본형 불황 우려

최경환 "법인세 안 건고 가계대출 늘리자" 박승 "법인세 걷고 가계소득 높여야 산다"

박승(사진 왼쪽) 전 한국은행 총재가 26일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 기조와 '초이노믹스'를 향해 '경제 후진화'이자 '헛도는 정책'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발언장소가 김세연 새누리당 의원이 주최한 당내 모임이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된다. 김 의원은 서울대 국제경제학과 출신으로 현재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경제 브레인 역할을 맡고 있다.

박 전 총재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 전체회의에서 '한국경제 위기와 구조개혁의 방향'이라는 특강을 통해 "지금 우리 경제는 구조적 위기다. 성장 위기와 분배 위기가 결합해 나타나고 있다"며 "계속 장기 성장률이 떨어져 일본형 장기 침체로 가지 않겠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고 진단했다. 최경환(사진 오른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이른바 '초이노믹스'와 같은 진단이다.

하지만 처방은 상극이었다. 최 부총리는 부동산 대출을 쉽게 하는 등 부양수단을 총동원해 경기를 살리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박 전 총재는 "부동산 경제가 가계 재산을 형성하고 이끌어주는 시대가 끝났다"고 일축했다.

여기에 더해 "급진적인 저출산과 노령화를 우리나라 경제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복지 기반이 구축되고 중산층이 두터워지는 성숙 과정이 제대로 되지 못하는 상태에서 경제 성장이 묶여버려 경제가 노화돼 버렸다"고 했다. "일종의 조로(早老) 현상"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문제는 성장이 아니라 분배"라며 "지금 정부에서 생각하는 것은 경제 선진화가 아니라 후진화다. 아픈 곳인 민생 쪽을 소홀히 한다"고 비판했다.

박 전 총재는 "나라는 부유한데 백성은 가난한 현상이 당장 핵심적인 문제"라며 "전체 국민 소득 가운데 가계 비중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 완전히 한쪽으로 기울고 있다"며 "이대로 가면 경제가 성장해도 가계 빈혈로 민간 소비가 위축돼 경제 성장이 안 되는 악순환, 저성장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투자와 수출은 변수가 아닌데 정책 당국이 그걸 모르고 있고 인정도 안 한다"고 꼬집었다.

특히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 기조에 대해 "증세 없는 것을 전제로 하다보니까 헛돌 수밖에 없다"며 "증세를 전제하지 않는다고 할 때 내놓을 카드가 얼마 없지 않나 싶다"고 비판했다. 박 전 총재의 해법은 법인세 증세다. 그는 "모든 국민이 증세에 참여해야 하고 정부는 소득재분배를 해야 한다"며 "정부가 세금을 거둬서 저소득층에 나눠주고 법인세를 걷어서 국민에게 나눠줘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모임 대표인 김 의원은 박 전 총재를 초청한 이유에 대해 "2015년 대한민국의 가장 핵심적인 의제라 할 수 있는 증세와 복지 논쟁을 피해갈 수 없다면 정면으로 이 문제를 다뤄 해결책을 나름대로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겠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송병형기자 bhsong@metroseoul.co.kr

우리는 용맹한 여자 보라매들 26일 오후 청주시 공군사관학교에서 열린 졸업식에서 여성 생도들이 졸업식이 끝난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경제·안보 영수회담 제의할 것"

문재인(사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김기춘 비서실장 후임 인사 등 청와대 개편이 완료된 뒤 경제와 안보를 의제로 하는 영수회담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제의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문 대표는 언론인터뷰를 통해 "경제가 워낙 위기 상황이고, 특히 서민경제 파탄은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며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만나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청와대 비서실장은 공백 상태로, 체계가 잡혀 대화할 수 있는 상황이라 판단될 때 정식 회담을 제안할 것"이라며 "민감한 정치현안은 제쳐두고 초당적 논의와 협력이 필요한 경제와 안보를 의제로 삼겠다"고 했다.

/송병형기자

한·체코 정상회담 박근혜 대통령이 26일 오전 청와대에서 보후슬라프 소보트카 체코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기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이날 회담에서 양국은 안보, 경제 협력을 위한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공동선언에는 양국이 북한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북한의 검증가능한 비핵화와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 촉진을 위한 유의미한 협상, 즉 6자회담 복귀를 촉구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연합뉴스

"통일대박론 헛꿈 꾼다"

전문가들 비판 쏟아져 북핵저지 실패론 '봇물' 박근혜 통일 정책 위기

박근혜정부의 최대 히트상품인 '통일대박론'이 출시 1년여만에 위기를 맞고 있다. "제발 환상에서 벗어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라"는 전 미국 국무부 관리의 돌직구 발언을 비롯해 관련 전문가들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핵심은 북한의 핵무장 저지 실패론이다. 핵무장에 성공한 북한이 아쉬울 게 있겠느냐는 비판이다. 한국의 대북정책 결정권을 장악한 군 출신 안보라인에게 북핵저지는 제1목표지만 실제 해결책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다. 열쇠는 미국과 북한이 쥐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북한 붕괴 가능성에 기대는 모습이지만 북한에 급변사태가 발생하리라는 보장도 없는 상황이다.

◆ 미 전문가, 하원 청문회서 "북한은 사실상 핵보유국"

2009년부터 5년간 미국 국방장관실 자문역을 지낸 밴 잭슨 신안보센터 객원연구원은 26일(현지시간) 미 하원 동아시아태평양소위원회 청문회에 앞서 제출한 서면증언을 통해 "북한의 핵보유국화를 막겠다는 목표는 명확하고 가시적으로 실패했다"며 "북한은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서 핵무기 재고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없는 상태이며 (선제적 핵공격에 대응하는) 보복적 핵타격 능력을 확보하는 쪽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보유국화를 막지 못하면서 한반도에서 또 다른 전쟁을 막는다는 목표도 실패할 위험이 커졌다"며 "북한은 대형 전쟁에 대응하는 핵억지력을 확보하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위협적 폭력과 군사모험주의에 자유롭게 나서려고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잭슨 연구원은 "북한의 핵위협을 관리하려면 우리는 제한적 전쟁과 그에 따른 계획을 준비해야 한다"며 "미국은 북한의 요구에 굴복할 수도 없으며 북한의 핵능력을 불능화하기 위해 예방적인 전쟁에 착수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 전직 북핵담당 미 관리 "한국정부, 환상에서 벗어나라"

잭슨 연구원에 앞서 조엘 위트 미국 존스홉킨스대 초빙연구원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워싱턴 특파원들과의 조찬 브리핑에서 북한이 현재 10~16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2020년까지 최대 100여개에 달하는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그러면서 "지금 한국 정부가 통일을 이야기하지만 현실적으로 핵무기 50~100개를 보유한 국가와 어떻게 통일을 추진할 수 있느냐"며 "제발 환상에서 벗어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위트 연구원은 초기 북핵문제를 담당했던 미 국무부 관리 출신으로 존스홉킨스대 북한전문 웹사이트인 '38노스'를 운영하고 있다. 미국의 대표적인 대북 비둘기파이면서도 관료 특유의 현실감각을 갖춘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그는 2008년 1월에 곧 출범할 이명박정부를 향해 "북핵 협상은 본질적으로 미국과 북한 간의 협상으로 한국은 협상의 진행 여부에 있어서 주도적인 요인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중요한 것은 미국과 북한 사이에 일어나는 일들이지 한국의 차기 대통령의 말과 행동이 아니다"고 말하기도 했다. 실제 이명박정부 이래 북미 간 협상이 막히면서 한반도 정세는 악화일로를 달렸다.

◆ 국내 전문가 "통일대박론, 애초부터 실현 불가능"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이후 줄곧 통일 문제에 몰두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특히 지난해 1월 신년기자회견에서 "통일은 대박. 한반도 통일은 우리 경제가 대도약할 수 있는 기회"라며 '통일대박론' 신드롬을 일으키기도 했다. 하지만 성과는 없이 강한 인상만 남기는 데 그쳤을 뿐이다.

이 같은 결과를 두고 현 정부 출범 이후 군 출신 안보라인이 대북정책 결정권을 장악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지난해 기자와 사적으로 만난 자리에서 "장관 취임을 뒤늦게 축하한다"는 인사에 "과연 축하받을 만한 일인지 모르겠다"고 말할 정도로 의욕을 잃은 상태였다. 결국 몇 달 더 자리만 지키다가 후임자 취임을 기다리는 처지가 됐다.

특단의 변화가 없다면 후임 장관 역시 자리만 지키다 물러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위트 연구원의 지적대로 북핵 문제가 북미 간 협상에 좌우되는 상황에서 북한의 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최우선으로 하는 군 출신 안보라인에게 막힌 정국을 돌파할 카드는 없을거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한 통일연구기관의 전문가는 "이들 군 출신 인사들이 북한 붕괴를 기대하고 있다는 사실은 공공연한 비밀"이라며 "애초부터 통일대박론은 실현되기 어려운 허망한 정책이었다"고 일축했다.

/송병형기자 bhsong@metroseoul.co.kr

정부 "노무현 쇠고기 이면합의 없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노무현정부 당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위한 이면합의는 없었다고 밝힌 것으로 드러났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회고록을 통해 주장한 내용과는 사뭇 달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백재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산업부 서면질의 답변서를 공개했다.

산업부는 답변서에서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식품안전을 최대한 확보한다는 전제하에 과학적 근거, 국제 기준, 국익을 고려해 협상을 타결했다"며 "노 전 대통령이 2007년 4월 담화문에서 '국제수역사무국(OIE) 권고에 따라 합리적 기간에 마무리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면합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농림부·외교부 등 관계부처에서도 이면합의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했다"며 "다만 미국이 2007년 5월 광우병 위험 통제국(특정위험물질을 제외한 모든 월령의 쇠고기 수출이 가능한 국가)으로 지위를 부여받음에 따라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해 1년여간 협의과정을 거쳐 한·미 간 합의를 했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산업부는 특히 노 전 대통령이 미국 측과 나눈 얘기가 담화문의 내용과 같다고 하고 있다. 이는 문재인 대표가 (지난 1일 기자간담회 등에서) 말한 내용과도 일치한다"며 "이 전 대통령이 책임을 모면하려고 허위 사실을 회고록에 담았다. 이후 정부가 미국이 주도하는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등 통상협상에 참여할 때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병형기자

강남 한복판에 뿌려진 '정권규탄' 전단지 26일 오후 서울 강남구 강남역 인근에서 각종 세금 인상과 복지공약 이행률 등 박근혜 정권을 규탄하는 내용이 담긴 전단지가 기습적으로 뿌려졌다. /뉴시스

"통진당, 6억대 불법자금 조성"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옛 통합진보당이 6억7000여만원의 불법 정당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을 포착해 중앙당 회계책임자 등 관련자 29명을 26일 검찰에 고발했다. 중앙선관위는 또 위법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증거가 불충분한 옛 통진당 소속 전직 국회의원 6명을 포함한 총 22명에 대해 수사의뢰했으며 국고보조금 등 1억2000여만원을국고귀속 및 환수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선관위에 따르면 검찰에 고발된 중앙당 회계책임자 등은 중앙당의 기획 하에 시·도당과 소속 국회의원후원회를 통해 2013년에서 2014년 사이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6억7000여만원의 불법 정당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후원금 모금과정에서 시·도당 당직자와 노동조합 간부 17명은 정치자금법에서 허용하지 않은 방법으로 모금절차를 위반해 후원금을 모금한 혐의도 파악됐다.

아울러 중앙당 회계책임자는 2014년도 경상보조금 총 27억8490만원 중 30%에 해당하는 금액인 8억3547만원을 정책연구소에 지급해야 함에도 5억6000만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밖에 당직자 퇴직금 1400만원을 3명에게 중간 정산했음에도 정당해산에 따른 회계보고시 퇴직금내역(미지급)에 포함시켜 이중기재함으로써 국고반환 잔액을 축소 신고하고, 중앙당이 2253만원의 선거용품을 시·도당에 지원하였으나 회계보고에 누락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선관위는 검찰에 수사의뢰한 것과 관련해 "전직 국회의원 후원회의 회계책임자 6명 전원이 고발됨에 따라 지정권자인 국회의원들도 연계성이 의심되나, 조사에 불응하거나 혐의를 밝힐 수 없어 수사의뢰했다"고 설명했다.

/정윤아기자 yoona1@

전 세계 27개국 220개 도시에서 발행되는 메트로신문은
한 주 동안 화제가 된 해외 메트로 주요 기사들을 소개합니다.

metro HongKong

妙計創業

學
在
成
，

▲張介然。（互聯網）

。其經營模式是，把麵包
農場的羊雞和魚做飼料，
則可獲得農場的雞蛋作為

metro Canada

CV, jamais convoqué

Par Anne-Frédérique Hébert-Dolbec
TC Media

Mohammed a envoyé plus d'une centaine de CV, sans succès. Il songe maintenant à retourner au Maroc, son pays d'origine. Vanessa Limoges/TC Media

아랍인 이유로 100여곳서 취업 퇴짜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한 이민자 남성이 취업 준비 중 인종차별을 당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되고 있다. 모로코 출신으로 2011년 퀘벡주로 이민을 온 이 남성은 지난해 1월 퀘벡대(UQAM)를 졸업했다. 이민을 오기 전 모로코에서 10년간의 실무 경험을 쌓았기 때문에 취업이 쉬울 거라 생각했지만 결과는 뜻밖이었다. 이력서를 넣은 100여군데 회사 중 연락이 온 곳은 단 한군데뿐이었다. 그는 "처음에는 이력서에 문제가 있어 연락이 오지 않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알고보니 아랍인이라는 게 문제였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정리=정주리 인턴기자

metro France

déjà ses premiers clients

ÉE : 24-02-2015 19:34

ÉCONOMIE – Un commerce d'un nouveau genre, qui propose de faire ses courses en échange de services, va bientôt voir le jour à Toulouse. Les modalités d'implantation de ce supermarché coopératif sont en cours de finalisation.

Les clients pourront acheter des produits moins chers et de meilleure qualité en échange d'heures de services.

슈퍼마켓과 손님이 서로 돕는다

슈퍼마켓과 손님이 협동하는 이색 프로젝트가 화제다. 24일(현지시각) 프랑스 툴루즈 세르(Serre)에선 '라루브(Lalouve) 프로젝트'를 신청한 80여명이 첫 모임을 가졌다. 신청자들은 한 달 중 3시간 가게 일을 도와주고 다양한 혜택을 받는다. 가게를 청소해주거나 물품 배달을 해주면 20~30%가량 저렴한 가격에 물건을 구입할 수 있다. 프로젝트를 기획한 셀린느 라포르트(Celine laporte)는 "가게와 손님이 서로 도와주고 모두 혜택을 받기 때문에 상부상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필립 퐁 기자 · 정리=정주리 인턴기자

<제과점·농장주>

남은 빵 주고 달걀 받고 '윈윈'

中 대학생 물물교환 아이디어 '혁신 도전 콘테스트' 대상…창업 예정

빵과 달걀 물물교환 아이디어가 중국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 '행운의 빵'으로 불리는 이 프로젝트는 제과점의 재고 빵을 닭 사료로 주고 농장주는 달걀로 되돌려주는 것이 골자다.

24일 메트로 홍콩에 따르면 중국 최대 유통업체 '캉스푸(康師傅)'가 주최한 '혁신 도전 콘테스트'에서 빵과 달걀을 물물교환하자는 아이디어가 대상을 받았다. 영예의 주인공은 베이징 외교대학에 재학 중인 장제란(21)씨.

장씨는 빵집에서 팔고 남은 빵을 농장에 사료로 제공하고 달걀로 돌려받자는 아이디어로 1679개 경쟁작을 제치고 우승을 차지했다. 단순한 물물교환 방식으로 사회 자원을 절약할 수 있고, 상생의 선순환을 실현할 수 있다는 취지가 높은 평가를 받은 것이다.

이 아이디어는 장씨가 신입생 시절 농촌 봉사활동을 하던 중 닭 사료 가격을 걱정하는 사람들에게서 착안했다. 통상 제과점은 당일 팔리지 않는 빵은 수거한다. 제품 풍미가 떨어지고 빵이 굳어 상품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장씨는 "닭이 재고 빵을 먹을 수 있다면 사료 값을 절약할 수 있지 않을까. 이 빵을 먹은 닭의 달걀을 제과점에 보내면 서로 이득일텐데"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청화대학 농업전문가의 자문을 얻은 결과, 순곡물빵은 영양이 풍부해 사료 대체품으로 사용 가능하고 최대 15일까지 보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남은 빵을 열흘 안에 닭에게 주면 무방한 것이다. 장씨와 친구들은 순의구, 창평구 등 지역 농장과 제과점을 돌아다니며 연계를 시도했다.

처음에는 이 의견을 수용하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 그녀는 제과점에 남는 빵을 우선 무료로 제공해달라고 설득했고, 자신의 생활비를 털어 농장에 시범적으로 사용해 보라고 배송했다. 사용해 본 농장주들은 사료 비용을 낮출 수 있다는 그녀의 말을 점점 믿게 됐다. 결국 농장주들은 빵을 받는 대신 달걀과 딸기 등을 보내주는 것으로 제과점들과 계약을 맺었다.

현재까지 26개 농장과 26개 제과점이 이 계약을 맺었다. 지난해 한 해 그녀의 사업팀이 처리한 빵은 약 2만4000kg, 교환한 달걀은 1200kg이다. 장씨는 회사 등록 절차를 밟아 정식 창업을 할 예정이다.

장씨는 "유기견 센터에 보내기 위해 남은 빵으로 개사료를 생산할 공장을 찾고 있다. '행운의 빵' 프로젝트를 통해 더 많은 사회문제가 해결되길 바란다"고 CEO로서 포부를 밝혔다.

/정리=장윤희기자

"面包换鸡蛋"项目成本、收益核算

× 20斤 = × 1斤
20斤下架面包可兑换一斤(有机)鸡蛋

¥ 1090元　　¥ 3285元

按每斤(有机)鸡蛋10元计算，一个面包房每年可实现额外收益1090元。

按每斤饲料至少可节省1.5元计算，一家农场每年可降低饲料开支3285元。

以某面包房为例，数据由张介然团队提供　新京报制图/高俊夫

metro Russia

시각 장애인 소리로 보는 3D 안경 개발

시각장애인도 정상인처럼 사물을 확인하는 일이 가능해졌다.

메트로 페테르부르크는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차세대 엔지니어들로 구성된 발명 그룹이 시각장애인용 3D 안경 개발에 성공했다고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안경을 통해 시각장애인들은 혼자 목표 장소에 도착하고 방해물을 인식하며 사물의 색을 구분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3D 안경 개발자 바딤 키타예프는 "우리 팀에는 시각장애를 가진 젊은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있다"며 "그를 통해 시각 장애인을 도울 수 있는 안경 개발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3D 안경이 상용화된다면 시각 장애인들의 생활에 혁신을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3D 안경은 안경 내부에 GPS 시스템이 장착돼 있어 사용자가 수집하는 다양한 주변 정보를 컴퓨터에 전송하는 방식이다. 예를들어 사용자가 이동 중 방해물을 발견할 경우, 이 정보는 즉시 컴퓨터로 전송돼 3차원 모델을 구현하게 되고 안경에 내장된 음성 시스템을 통해 사용자에게 방해물 정보를 알려주게 된다.

키타예프는 "이같은 방식으로 사용자는 계단과 같은 방해물은 물론 사물의 색과 신호등을 볼 수 있다"며 "3D 안경의 음성 서비스에 익숙해진 사용자는 독서를 하거나 상품의 바코드도 읽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3D 안경은 현재 마무리 디자인 작업 중이다. 올해 말 출시를 목표로 상용화 준비 단계다. 가격은 3만 5000 루블(약 61만원)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정리=이국명기자

연 2%대 주택담보대출 나온다

금융위, '가계부채 대응안' 내놔
20조원 한도 9억이하 주택 대상

단기·변동금리를 장기·고정금리로 갈아타는 연2%대 전환대출 상품이 내달 24일 출시된다.

또 구조개선 실적 등에 따라 금융기관별 출연료 차별화가 확대되는 한편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되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료도 감면된다.

26일 금융위원회는 가계 대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가계부채 평가 및 대응 방향'을 발표했다.

고정금리와 분할상환 대출 비중이 25%대 수준에 머물고 있는 등 빚을 갚아나가는 구조를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는 데 따른 방안이다.

◆ 9억원 이하 주택, 5억원 이하 대출금 대상

이에 금융위는 기존 대출을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해주는 '가계대출 구조개선 프로그램(일명 안심전환대출)'을 추진키로 했다.

전환 대상은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중 '변동금리대출' 또는 '이자만 내고 있는 대출'이다. 주택가격과 대출금은 각각 9억원, 5억원 이하이며, 올해 20조원 한도내에서 취급된다.

이는 기존대출 은행에서 전환할 수 있으며 대출취급 후 1년이 경과한 대출 중 최근 6개월간 연체가 없는 정상대출만 가능하다.

고정금리이면서 원금을 상환중인 대출이나 보금자리론, 디딤돌대출, 적격대출과 한도대출은 전환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신규 대출의 경우 10년이나 15년, 20년, 30년 동안 원(리)금을 균등 분할 상환하도록 설계됐다.

금리는 만기까지 고정되는 기본형과 5년마다 보금자리론 금리에서 0.1%포인트를 빼는 금리조정형으로 나눈다.

현재 20년 만기 전액 분할상환시 금리는 2.8%며 20년 만기 70% 부분 분할상상상품의 금리는 2.9%다. 단 기준이 되는 고정금리는 국고채 금리 등을 감안해 매월 조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70%, 총부채상환비율(DTI)은 60% 이내로 적용하며 기존 대출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는 전액 면제한다.

대출자는 기존 대출은행에서 신규대출을 받아 기존대출을 상환하면 된다. 다만 전환 다음 달부터 원리금 상환이 시작되므로 이를 감내할 수 있는지 사전에 점검해야 한다.

주택금융공사는 신규대출을 인수해 MBS로 유동화하며, 해당 대출은행은 전환 규모에 비례해 MBS를 1년간 보유한 후 시장에 매각할 수 있다.

김용범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대출비중 확대로 금융시스템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20조원이 모두 전환될 경우, 고정금리대출 비중과 비거치식분할상환대출 비중은 각각 최대 5.4%p 상승할 전망"이라고 예상했다.

김 국장은 "대출 전환과정에서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고, 대출금을 나누어 갚으면서 만기 일시상환의 부담도 경감된다"며 "장기 주담대에 대한 이자비용 소득공제에 따라 세금부담도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 주담대 금리 평균 0.09%p 인하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료 제도 또한 개편된다.

금융위는 내년부터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요율을 평균 0.26%에서 0.17%로 내려 주택담보대출금리를 평균 0.09%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기조요율은 만기 5년 이상의 장기나 고정금리·분할상환(거치기간 1년 이내) 대출금에 최저 요율인 0.05%를 적용하며 나머지에는 0.3%를 적용한다.

이렇게 되면 만기 5년 이상 비거치식 대출은 0.05%포인트 금리 인하 효과를 볼 수 있으며, 만기 10년 이상 거치식 대출에는 0.2%포인트 금리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

김 국장은 "우대요율을 신설하는 등 주택담보대출 구조개선을 통해 주택금융시장 안정에 기여한 금융기관에 대해 출연료를 감면하겠다"며 "복잡한 기준요율 체계를 단순하게 정비하고, 차등요율은 합리적으로 조정해 수익자 부담원칙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현재 한국의 가계 부채에 대해 전반적으로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지난해 9월 말 현재 한국의 가계부채는 1060조3000억원, 판매신용을 제외한 가계대출은 1002조9000억원이다.

김 국장은 "가계대출의 양적 규모가 예년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며 "4~5분위 고소득 차주가 가계부채의 70%를 보유하고 있어 상환능력이 양호한 가운데 담보력이 있고 연체율과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낮아 손실흡수 능력도 있다"고 말했다.

/백아란기자 alive0203@metroseoul.co.kr

롯데월드타워 해빙기 안전점검 실시 국토교통부 관계자들을 비롯한 안전점검반 요원들이 봄철 해빙기를 앞두고 26일 서울 잠실 롯데월드타워 98층 메인중앙기둥 건설현장에서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1월 카드사용액 11개월래 최저

소비부진과 물가상승률 둔화로 지난 1월 카드승인금액 증가율이 11개월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여신금융협회가 발표한 '1월 카드승인실적 분석'에 따르면 지난 1월 카드 승인금액은 48조4300억원으로 작년동월보다 3.1%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는 지난해 2월(2.5%)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로, 작년 1월 증가율은 9.0%에 달했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소비심리가 더디게 개선되고 물가상승률이 둔화된 것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며 "늦은 설연휴로(1월→2월) 명절특수가 1월에 없었던 점도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지난 1월 소비자심리지수와 경제심리지수는 각각 102와 95로 전년동월(109, 97)대비 하락했다.

같은 기간 전체카드 승인건수는 총 10억800건으로 14.0% 증가해 소액결제화 추세를 보였다.

카드 종류별는 신용카드 승인액이 38조6600억원으로 전년보다 1.2% 늘었고 체크카드는 9조6400억원으로 11.9% 증가했다.

특히 지난 1월 중 전체 카드 대비 체크카드 승인액 비중은 19.9%로 거의 20%에 달했다. 또 카드 결제의 소액화로 1월 평균 건당 결제액은 4만8034원을 기록했다.

카드 종류별 평균결제금액은 신용카드가 7.5%, 체크카드가 9.4% 하락했다.

업종별로는 공과금 서비스의 카드 승인액이 지방자치단체의 '간단e납부' 서비스 확대 시행으로 작년 동월보다 17.6% 증가했다.

일반 음식점은 17.1%, 국산 신차판매는 15.6% 증가했으며 인터넷 상거래는 55.8% 늘었다. 반면 주유소 업종은 늦은 설 연휴와 유가 하락으로 15.2% 줄었다. 주유소 업종의 이용액은 8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또 올해 명절 특수가 2월로 미뤄짐에 따라 유통 관련 업종의 카드 승인액이 1년 전보다 8.6% 줄었다. 대형할인점 업종의 카드 승인액은 18.6%, 백화점은 9.1% 각각 감소했다. /백아란기자

market index <25일>

코스피 1993.08 (+2.61)

코스닥 617.08 (+0.51)

금리(국고채 3년) 2.04 (변동없음)

환율(원·달러) 1095.00 (−3.50)

"3월 신규분양 6만가구 올 주택시장 바로미터"

역대 최대의 공급량과 수요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3월 분양시장이 올 한 해 주택시장 전반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좌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다음 달 신규 분양 물량이 6만여가구는 넘길 것으로 예측했다. 이중 국내 시공능력평가 상위 10대 건설사가 3월 중 전국에서 1만7000여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수요자들의 움직임도 활발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문가들은 개편된 주택청약제도에 따라 3월 수도권 1순위 자격을 받는 사람들까지 포함하면 1순위만 1000만명은 족히 넘길 것으로 추산한다.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전국적으로 1순위는 940만여명이었다.

이에 업계에서는 3월이 올 한 해 주택시장을 판가름할 주요한 시점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특히 서울 지역에서는 전세난이 더 악화될 것이 점쳐지며 세입자가 매매시장으로 돌아설 것을 기대한다. 4월부터 분양가상한제가 사실상 폐지돼 분양가가 오를 것이란 두려움도 3월에 수요자를 움직이는 힘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조은상 부동산써브 책임연구원은 "3월 분양시장이 올 한 해 전체 주택시장을 가늠할 수 있는 정도는 된다"며 "섣불리 판단하기는 이르나 낙관적인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3월에는 금융지원도 본격화된다. 초저금리대 수익공유형모기지가 출시되고 말에는 단기·변동금리를 장기·고정금리로 갈아탈수 있도록 한 연 2%대 금리의 전환대출 상품도 선보인다. 주택금융공사는 3월 보금자리론 금리를 동결했다.

조 책임연구원은 "3월 분양시장의 성패는 건설사들의 적정 분양가 책정에 달렸는데 그동안 아껴뒀던 단지를 많이 쏟아낼 것으로 보인다"며 "3월에 좋은 성적으로 치고나가야 4~6월까지 꾸준히 사업장이 나올텐데, 좋은 성적을 내지 못하면 앞으로의 분위기는 확 바뀔 수도 있다"고 조언했다.

/김학철기자 kimc0604@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경희궁길9(신문로2가)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인쇄인 남궁호
사장·편집인 김종학
편집국장 강세준
광고문의 02)721-9851,3
독자센터 02)721-9861
2002년 5월 31일 창간/등록번호 서울특별시 가00206

자살보험금, 첫 지급 판결에 보험업계 촉각

소비자단체 추가 소송인 모집… 관련 소송 줄이을 듯

재해자살사망보험금(이하 자살보험금)과 관련 생명보험사가 계약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현재 80여명이 소송에 참여했고 소비자단체가 추가 소송을 검토하고 있는 만큼 생보사의 대응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 101 단독 재판부는 최근 박모씨 등 2명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특약 가입 당시 약관에는 자살은 재해사망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니나 특약에 포함된 '정신질환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어려운 상태에서 자살한 경우나 특약 보장 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난 뒤 자살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는 조항을 인정했다.

이번 자살보험금 지급 판결에 따라 추가적인 소송이 줄이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금융소비자연맹 등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ING생명을 상대로 공동소송을 진행한 데 이어 2차 추가 공동소송인을 모집하고 있다.

이밖에도 삼성·교보·한화·메트라이프생명 등을 상대로 20개 재판부에서 60여명이 추가 공동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기욱 금소연 보험국장은 "자살보험금 관련 소송이 줄이은 가운데 나온 첫 소송에서 보험금 지급 판결이 나온 만큼 추가 소송과 관련 문의전화가 많이 오고 있다"며 "3월에 추진 중인 2차 공동소송 인원은 1차때보다 인원이 증가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생보사들은 이번 판결에 크게 무게감을 두지 않으려는 분위기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판결문을 보고 항소를 준비할 것"서 "이번 판결은 1심이고 추가 소송이 진행될 예정인 만큼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생보사들의 상황도 녹록치는 않다.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말 실시한 현장점검 등을 바탕으로 생보사에 대한 제재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인 데다 지난해 말에는 ING생명이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금감원 제재 가처분 신청도 기각됐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이 회사를 대상을 진행한 종합검사를 실시, 미지급 자살보험금을 지급할 것과 기관주의 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생보업계 관계자는 "생보업체들이 이미 충당금 형태로 2000억원가량의 자금을 마련하고 있지만 첫 판결이 추가 소송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며 "보험사 입장에서는 패소해도 최대한 3심까지 사건을 끌고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편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4월 말 기준 미지급된 보험금은 모두 2179억원으로 집계됐다. 대형보험사는 859억원(1266건), 중소형사 413억원(630건), 외국사 907억원(751건)이다.

/김형석기자 khs84041@metroseoul.co.kr

하나금융, '우렁각시'변신

소외된 이웃 위한 '설맞이 행복상자' 제작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이 소외된 이웃을 위해 우렁각시로 변신했다.

26일 하나금융그룹에 따르면 하나은행과 외환은행 임직원들은 지난 7일 하나은행 삼성동 별관에 모여 소외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설맞이 행복상자'를 제작했다.

'행복상자'란 쌀과 라면 등 식료품이 담긴 상자로, 하나금융이 주기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주요 사회공헌 활동 가운데 하나다.

이는 하나·외환은행 지역본부에 배송돼 결손 가정 어린이나 독거노인, 타향·타국에서 명절을 맞이하는 탈북민과 다문화이주민 등 저소득·소외계층에 전해진다.

양 은행은 올해 명절을 시작으로 가정의 달과 추석, 연말 등 모두 다섯 차례에 걸쳐 행복상자를 만들어 전달할 예정이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행복상자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사회와 소통하며 신뢰를 쌓을 수 있도록 다방면에서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찾아가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마련해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하나금융은 매년 '1(하나)'이 겹쳐지는 11월 11일을 '모두하나데이'로 정하고 이듬해 1월11일까지 두 달간 그룹 전 계열사가 참여하는 봉사활동도 진행하고 있다.

올해로 4번째를 맞이한 이번 캠페인은 '하나되는 어울림으로 행복한 세상'이라는 슬로건 아래 그룹 내 2만5000여명의 임직원들이 참여했다.

직원들은 ▲기부 혹은 봉사 활동을 이어가는 '하나행복릴레이' ▲전국의 소외계층을 찾아 지원하는 '내 마음의 행복상자' ▲해외 빈곤 아동에게 의류와 학용품을 전달하는 '해피 쉐어링' 등 계열사별 다양한 이벤트와 봉사 활동들을 집중적으로 시행했다.

특히 하나금융은 루게릭병 환자를 위한 릴레이 기부 캠페인인 '아이스버킷 챌린지'의 아이디어를 착안해 작년 10월부터 '행복릴레이'도 진행했다.

'행복릴레이'는 지목된 직원이 3명의 직원을 선정, 기부와 봉사활동을 하는 것으로 지난 11주간 임직원 약 1만1654명이 참여, 약 1억8000만원이 모였다.

모금액은 임직원과 함께하는 하나금융그룹의 나눔활동에 사용될 예정이다.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은 "올해로 네번째 해를 맞는 '모두하나데이' 캠페인이 봉사와 나눔을 통해 동료, 이웃 그리고 세계와 하나되는 하나금융그룹 사회공헌 활동의 전통으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며 "이를 통해 하나금융그룹은 앞으로도 고객과 지역사회는 물론 글로벌 시장에서도 신뢰받고 앞서가는 글로벌 금융그룹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아란기자 alive0203@

하나금융 임직원들이 행복상자를 제작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하나금융 제공

생보재단, 광명서 어린이집 개원식 개최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이 26일 경기 광명시에서 광명생명숲어린이집 개원식을 개최했다. 개원식에서 김희영 광명생명숲어린이집 원장, 양기대 광명시장, 이시형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이사장 등이 테이프커팅을 하고 있다.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제공

김주하 NH농협은행장, 1만km 뛴 사연은?

김주하 NH농협은행장이 기술금융을 지휘하고 현장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 1만km를 달렸다.

26일 농협은행은 김 행장이 지난 1월말부터 2월 초까지 전국 17개 영업본부를 방문하며 거래기업체들을 만났다고 밝혔다.

이는 1만 km가 넘는 거리로 김 행장은 경남 김해의 주방용 전기기기업체인 ㈜ 휴롬과 대구 신용보증기금 신사옥 이전식 등에 참석했다.

기술금융 확산에 발 벗고 나선 것이다.

앞서 김 행장은 작년 4월과 7월 두차례에 걸쳐 전국을 두 바퀴 돌며 기술력이 있는 중소기업들을 방문했다.

또 중소기업 CEO와의 간담회를 통해 기술력은 있으나 자금이 부족한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왔다.

이 결과 지난해 여신정책부내 기술평가팀을 신설했으며 기술금융관련 전산심사시스템을 구축하고 기술금융 심사전문인력 양성과정도 개설했다.

이와 함께 농협은행은 올해 전년대비 1조원 이상 순증을 목표로 기술금융을 확대키로 했다.

실제 전년 말 692건 3840억원이었던 기술금융 실적은 2월 현재 885건 5025억원으로 두달 새 1000억원 이상 확대되고 있다.

농협은행은 또 기술력이 있는 농업관련 제조기업과 농산물 가공식품 기업에 대한 지원을 특화할 전략이다.

특히 농업기술실용화재단과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등 농업분야 단체와 긴밀히 협력해 국산 농산물을 가공, 농식품을 생산하는 우수 기술 기업을 적극 발굴 육성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전용상품을 통한 중소기업 금융지원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농협은행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단체인 이노비즈협회와 메인비즈협회 회원사 전용 금리우대형 대출상품인 '이노·메인비즈대출'을 내놨다.

'이노·메인비즈 대출'은 1월 현재 1조 1373억원에 달하는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창업 7년 이내 기술형 중소 기업에 최고 3.1%p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기술형창업우수기업대출' 실적도 1366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출시된 'NH산업단지대출'도 지금까지 834억원을 대출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대출도 작년 한해 8000억원이나 늘었다.

한편 농협은행은 창업초기 기업과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도 지속적으로 지원키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신설된 기술평가팀은 이공계 출신 직원과 함께 외부 전문인력인 변리사를 특별 채용했다. 올해는 그 규모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백아란기자

www.nonghyup.com
'함께'의 힘은
'혼자'보다 강하기에…
함께의 힘은
패배를 승리로 이끌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포기를 기회로 만들어내듯,
농협, 그 하나의 이름으로
농업인과 국민 행복시대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함께의 힘-NH농협
NH 농협

대형주 1분기 실적 전망 '청신호'

영업이익 전망치 연초보다 1.4% 올라

국내 시가총액 상위 30위권 대형주의 1분기 실적에 '청신호'가 들어왔다. 올 1분기 실적 전망이 점차 긍정적으로 바뀌는 분위기다.

전문가들은 "올해 1분기 영업이익 추정치가 꾸준히 상향되고 있는 종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26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시가총액 상위 30위 종목 가운데 증권사 3곳 이상이 추정치를 제시한 29개(LG 제외)의 1분기 영업이익 전망치가 연초 보다 1.4% 올랐다. 보통 1~2월에는 예상치 못한 영업외손실과 충당금 설정 등으로 부진해진 4분기 실적이 반영되면서 이익 추정치가 하향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올해는 오히려 전망치가 높아진 것이다.

전망치 상승을 이끈 종목은 대부분 지난해 4분기 양호한 실적을 보인 대형 IT주로 나타났다.

시가총액 1위인 삼성전자의 1분기 영업이익 전망치가 연초보다 11.17% 상승했으며, 3위인 SK하이닉스가 4.06% 올랐다. LG디스플레이의 전망치가 25.25% 증가했고, 지난해 IT서비스와 반도체 부문에서 호실적을 보인 SK C&C의 전망치 역시 5.88% 뛰었다. 또 지난해 양호한 실적을 거둔 삼성생명의 전망치가 39.72% 올랐고, 올해 1분기 실적부터 유가 하락의 영향이 본격적으로 드러날 것으로 전망되는 한국전력이 26.13% 상승했다.

이와 함께 높은 성장세가 기대되는 화장품주인 아모레퍼시픽과 아모레G가 각각 4.59%, 3.67%씩 올랐고, LG생활건강도 0.92% 상승했다.

한편 같은 기간 주요 상장사 177곳의 영업이익은 0.34% 하락했다. 하지만 이 역시 3~4% 이상의 낙폭을 보인 예년과 비교할 때 대폭 줄어든 수치다.

염동찬 LIG투자증권 연구원은 지난해 아시아 주요국 중 높은 주가 상승률을 보인 국가로 인도와 대만, 일본을 꼽으며 "다른 신흥국과 달리 기업 이익 추정치가 상향 조정됐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올해 한국도 IT섹터를 시작으로 기업의 실적 추정치가 상향 조정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며 "주식시장의 긍정적인 변화"라고 진단했다.

/김민지기자 minji@

"위안화 채권, 분산투자 적합"

피델리티자산운용 "타 자산군과 상관관계 낮아"

피델리티자산운용은 중국 위안화 채권이 다른 자산군과의 상관관계가 낮아 분산투자 대상으로 적합하다고 전망했다.

브라이언 콜린스 피델리티 중국 위안화 채권 펀드 포트폴리오 매니저와 캐서린 영 피델리티 인베스트먼트 디렉터는 26일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콜린스 매니저는 "중국 위안화 채권은 미국이나 유럽, 이머징국가의 주식과 채권 등과의 상관관계가 낮다"고 말했다. 미국 금리뿐 아니라 크레딧 스프레드 변동성 영향도 적게 받아 분산투자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브라이언 콜린스 피델리티 중국 위안화 채권 펀드 포트폴리오 매니저(좌)와 캐서린 영 피델리티 인베스트먼트 디렉터(우)가 26일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청중의 답변에 대답하고 있다. /피델리티자산운용 제공

그는 위안화 채권이 위험 대비 수익률이 높고 만기가 비교적 짧아 금리 관련 위험도 낮출 수 있다는 것을 장점으로 꼽았다. 콜린스 매니저는 "만기 2~3년인 위안화 채권에서 평균 6~7%의 금리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콜린스 매니저는 점차 위안화 채권 발행이 늘어나고 있는 것에 주목했다. 그는 "중국기업 뿐 아니라 중국과 교역하는 기업, M&A기업 등을 통해 위안화채권 발행이 늘어나고 있다"며 "역내시장은 정부채 등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역외시장에서는 여러 국가들이 딤섬본드를 발행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영 디렉터는 "점차 소비재, 서비스업체들도 채권을 발행하기 시작했다"며 "최근에는 알리바바가 채권 발행을 개시했다"고 덧붙였다.

콜린스 매니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위안화 투자가 매력적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중국의 인플레이션, GDP 성장성, 한자녀 정책 완화와 무역 흐름, 기축통화 가능성, 정치적 안정성 등을 따져보았을 때 위안화는 향후 절상 가능성이 크다"며 "이미 세계 5위 수준의 글로벌 지불수단인데 비해 투자가 덜 돼왔다"고 설명했다.

또한 "위안화의 가치는 고평가되지도, 저평가되지도 않은 적정 가치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미국 달러화 대비 위안화 환율 전망도 향후 1~2년간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았다.

위안화는 세계 2위 강대국의 통화임을 감안했을 때 기축통화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나왔다. 인민은행(PBoC)이 세계 28개은행과 스왑거래 라인을 구축했고, 호주중앙은행의 전체 외환보유고 중 3%가 위안화 보유액이다. 이에 점차 위안화 관련 투자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편 피델리티자산운용이 내놓은 '피델리티 중국 위안화 채권펀드'는 역외 위안화 표시 채권인 딤섬본드에 우선적으로 투자한다. 피델리티운용은 중국 당국으로부터 적격외국인기관투자자(QFII) 자격을 획득하는 대로 역내 위안화 채권에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보라기자 purple@metroseoul.co.kr

외환은행 "통장부터 바꿔라"

직장인 이지영(29)씨는 내년 3월 자신만을 위한 여행을 준비 중이다. 그간 열심히 일한 스스로를 격려하고 선물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이씨는 통장과 적금부터 바꿨다. 저금리 시대에 일반 통장보다 자신의 목적에 맞는 맞춤형 상품을 통해 조금이나마 더 우대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이씨가 가입한 상품은 바로 외환은행의 '셀프-기프팅(Self-Gifting) 적금'과 '힘내라! 직장인 우대 통장'이다.

외환은행은 오는 3월말까지 젊은층과 싱글족 등을 겨냥한 '셀프-기프팅 적금'을 판매하고 있다.

10만좌 한도로 나온 이 적금은 자신에 대한 보상과 격려, 힐링의 키워드로써 본인 스스로에게 선물하는 기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재미와 배려를 곁들인 상품이다.

가입대상은 실명의 개인으로 계약기간은 1년제이며, 매월 20만원 한도내 자유롭게 적립할 수 있다. 금리는 기본금리에 우대금리를 포함해 최고 연3.6%('15.02.24 기준, 세전)까지 적용된다.

우대금리는 ▲3개월이상 자동이체로 적금 불입(연0.3%) ▲선물이미지 퍼즐 완성(최대 연1.0%) ▲신규 고객(연0.5%) ▲온라인채널로 예적금 추가 가입(연0.5%) ▲친구추천(각각 연0.3%) 등 총 5가지 항목 중에서 최대 연1.8%까지 받을 수 있다.

한편 만18세이상 35세이하 고객을 대상으로 한 '힘내라! 직장인 우대통장'도 있다.

이는 급여전용 수시입출금식 통장으로 급여이체 실적요건을 충족할 경우 금리우대 혜택은 물론 각종 수수료면제 혜택과 환율우대, 부가혜택을 제공한다.

금리 혜택은 매 결산일(3, 6, 9, 12월 넷째주 토요일) 전월 또는 해지일 전월 기준으로 제공된다. 과거 3개월 이내에 월 50만원 이상의 급여이체 실적이 2개월 이상일 경우 평균 잔액 구간별 우대금리를 차등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수수료 면제와 환율우대 등의 서비스는 전월 또는 전전월에 월 50만원이상 급여이체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수수료는 다른 은행 CD/ATM을 이용해 출금할 경우에도 횟수에 제한없이 면제받을 수 있다.

영업점 창구에서 외화 환전이나 송금을 할 경우에는 최대 60%의 환율우대 혜택을 준다.

/백아란기자 alive0203@

대우건설, 고객자문단 모집 대우건설이 프로슈머 그룹인 '푸르지오 패밀리 가든이' 고객자문단을 모집한다. 지난해 자문단으로 활동했던 회원들이 미사강변2차 푸르지오 견본주택 사전점검 행사에 참석해 내부를 둘러보고 있다. /대우건설 제공

현대건설, 싱가포르서 오피스빌딩 공사 수주

현대건설이 싱가포르에서 최고급 오피스빌딩 신축 공사를 따냈다.

현대건설은 싱가포르 민간 부동산개발회사 프레이저 센터포인트社의 자회사인 FC 커머셜트러스티가 발주한 '프레이저스 타워(Frasers Tower)' 신축공사를 수주했다고 26일 밝혔다.

지하 3층, 지상 38층, 연면적 7만7162㎡ 규모로 오는 4월 착공해 2018년 3월 완공 예정이다. 수주금액은 2억1146만 달러(약 2336억원)다.

현대건설은 단일 건축공사로는 싱가포르 최대인 '마리나 사우스 복합개발'에 이어 이번 '프레이저스 타워'까지 수주함으로써 고급 건축 부문에서의 선도적 입지를 재확인했다.

특히 이번 프로젝트를 발주한 회사는 현대건설이 2012년 수주해 공사 중인 워터타운 복합개발 공사의 발주처와 같다. 회사 측은 "발주처의 높은 신뢰와 우수한 시공능력을 바탕으로 후속 공사를 수주했다는 데 의미가 깊다"고 말했다.

/박선옥기자 pso9820@

이재용 개혁 키워드는 '소프트 소통'

빠른 인수합병 통찰력·온라인 토론회 눈길

이재용(사진) 삼성전자 부회장이 인수·합병(M&A) 통찰력과 소프트한 소통의 리더십 등을 발휘하며 삼성을 이끌어가고 있다.

이 부회장은 전 세계를 무대로 직접 발로 뛰며 국내외 기업들과 인수·합병(M&A)을 통해 미래먹거리를 창출하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임직원 상호간의 소통을 강화하며 새로운 대화채널을 여는 등 커뮤니케이션 확보에도 나섰다.

26일 삼성그룹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달 초부터 2주간 전 세계 임직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대토론회'를 진행했다. 일방적으로 회사를 이끌어 가기보다 임직원들과 소통을 통해 급변하는 시대 변화에 발빠르게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같은 변화는 최근 삼성의 M&A에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 2009년 11월 창립 40주년을 맞아 '비전 2020'을 발표했다. 이어 2010년 3월 5대 신수종사업(태양전지·발광다이오드(LED)·자동차용전지·헬스케어·의료기기)을 선정, 2020년까지 매출액을 440조원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그러나 최근 전자업계가 빠르게 변화되고 있음을 감지하고 부진한 사업은 과감히 정리하고 있다. 반면 사물인터넷(IoT)과 헬스케어 등 떠오르는 사업분야는 막대한 비용을 투자해 시장을 선점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기존 삼성의 다소 무거운 조직문화와 극명한 차이가 있다. 과거 업계는 삼성의 조직문화의 문제점 중 하나로 '새로운 시도에 대한 두려움'을 지적해왔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성과주의'를 강조하면서 신상필벌이 엄격했다. 이런 분위기가 새로운 사업을 전개하는 데 걸림돌이 됐다.

이 때문에 영국 경제전문지 이코노미스트는 "이 부회장이 힘겨운 과제를 떠맡고 있다"면서 그가 승계할 때는 스스로 '모든 것을 바꾸라'는 연설을 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부회장은 소통을 통해 이같은 우려를 단숨에 날렸다. 최근 삼성전자는 사내 집단지성 시스템 '모자이크'를 통해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모으고 있다. 모자이크는 임직원들의 창의적 아이디어 제안을 활성화하고 집단 지성을 통해 아이디어가 창조적 성과로 이어지게 하는 시스템이다.

삼성전자의 사내 집단지성 시스템인 모자이크는 하루 평균 4만 명 이상의 임직원이 꾸준히 참가하며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있다. 모자이크 명칭도 다양한 임직원들이 모여 큰 의미를 만든다는 뜻으로 임직원들이 함께 선정했다.

새로운 개혁을 이끌고 있는 이재용 체제의 삼성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양성운기자 ysw@metroseoul.co.kr

삼성·LG전자, MWC서 선진기술·제품 공개

차세대 네트워크 기술 시연하는 삼성
세계 첫 LTE 스마트워치 공개하는 LG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다음달 2일부터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개최되는 'MWC 2015'에서 선진기술과 제품을 공개한다.

삼성전자는 이번 MWC에서 VoLTE, CA(주파수 집성기술), C-RAN(집중형 기지국), eMBMS 등 국내 통신사업자들과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 LTE 네트워크 기술들을 대거 전시할 예정이다.

기지국과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HD급 음성품질을 보장해 VoLTE 커버리지를 대폭 확장하는 기술을 시연한다. CA의 경우 다양한 주파수 대역과 이종 통신기술을 활용해 통신 속도를 대폭 증가시키고 네트워크 운영 효율을 극대화 하는 솔루션들을 공개한다.

삼성전자는 통신사업자에게 망 설계, 최적화, 컨설팅 등을 제공하는 프로페셔널 서비스 섹션도 전시 부스 내에 별도로 마련한다. 이와 함께 LTE를 활용한 공공안전망(PS-LTE)과 미래통신기술로 주목 받고 있는 사물인터넷(IoT), 네트워크기능가상화(NFV), 차세대 이동통신 5G 기술도 함께 공개할 예정이다.

LG전자가 MWC2015에서 공개하는 'LG 워치 어베인 LTE'. /LG전자 제공

LG전자는 MWC에서 세계 최초로 LTE 통신 기능을 탑재한 스마트워치 'LG 워치 어베인(Urbane) LTE'를 처음으로 공개한다. 이 제품은 세계 최초로 LTE 통신모듈을 탑해 스마트폰 없이 스마트워치 단독으로 고품질의 VoLTE 통화와 빠른 데이터 송·수신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NFC(근거리무선통신) 기반 월렛 서비스도 세계 최초로 스마트워치에 탑재됐다. 일반 무전기처럼 다자간 대화가 동시에 가능한 신개념 음성메시지 서비스 'LTE 무전기' 기능도 눈길을 끈다. 사용자가 'LTE 무전기' 앱을 실행하면 일대일 대화뿐만 아니라 같은 대화방 안에서 다자간 동시 대화도 가능하며 사용자의 현 위치정보도 서로 공유할 수 있다.

제품에는 '안전지킴이' 기능도 추가됐다. 워치 바디 측면의 3개의 물리 키(용두) 중에 하단 키를 길게 누르면 기존에 미리 설정한 보호자 번호로 통화연결이 되면서 현재 위치정보를 자동 전송하는 기능이다. /정혜인기자 hijung0404@

삼성전자 스마트폰용 초고속 128기가 메모리 양산

삼성전자가 메모리 부분에서 강자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삼성전자는 세계 최초로 차세대 스마트폰용 업계 최대 용량의 128기가바이트(GB) 'UFS' 메모리 양산에 돌입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제품은 국제 반도체 표준화기구 '제덱(JEDEC)'의 최신 내장 메모리 규격인 'UFS 2.0' 인터페이스를 적용한 제품으로 시스템 성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임의읽기 속도가 외장형 고속메모리 카드보다 12배 이상 빠르다.

특히 'UFS' 메모리는 SSD에서 사용중인 속도 가속 기능인 '커맨드 큐'를 적용, 기존 고성능 내장메모리 (eMMC 5.0)보다 2.7배 빠른 임의읽기 속도로 동작하면서도 소비전력은 절반 수준으로 낮출 수 있다.

임의쓰기 속도는 외장 메모리카드보다 28배가 빠른 1만4000 IOPS를 구현, 스마트폰에서 초고해상도(UHD)의 컨텐츠를 보면서 다른 여러 작업을 동시에 하더라도 버퍼링 현상이 없다.

이번 'UFS' 라인업의 용량은 128·64·32기가바이트로, 기존 'eMMC' 라인업 (64·32·16기가바이트) 대비 2배로 늘렸다.

백지호 삼성전자 메모리 사업부 마케팅팀장(전무)는 "앞으로 고용량 메모리카드의 공급 비중을 크게 높여 프리미엄 메모리 시장의 성장세를 지속 견인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양성운기자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장남 등 그룹인사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장남인 박세창(사진) 금호타이어 부사장이 아시아나애바카스 대표이사 자리에 올랐다.

금호아시아나는 26일 ▲부회장 2명 ▲사장 1명 ▲대표이사 선임 5명 ▲부사장 2명 ▲전무 14명 ▲상무 32명 등 총 55명의 3월 1일부 임원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

금호아시아나는 그동안 매년 연말에 임원인사를 해왔으나 올해부터 연초에 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함에 따라 이번에 인사를 하게 됐다.

이에 따라 ▲이원태 그룹 상근고문과 김성산 금호고속 사장이 그룹 부회장으로 승진했으며 ▲한태근 에어부산 대표이사 부사장은 에어부산 대표이사 사장으로 승진했다.

또 ▲이덕연 금호고속 부사장은 금호고속 대표이사에 ▲김현철 금호터미널 부사장은 금호터미널 대표이사에 ▲한창수 아시아나항공 부사장은 아시아나IDT 대표이사에 ▲박세창 금호타이어 부사장은 금호타이어 부사장과 함께 아시아나애바카스 대표이사를 겸직하게 됐으며 ▲류광희 아시아나항공 전무는 서울에어 대표이사에 선임됐다. /이정필기자 roman@

LG전자, 시스템에어컨으로 인도시장 공략

고효율 지역 특화 제품 대거 전시

LG전자가 지역 특화 시스템에어컨으로 인도시장 공략 강화에 나선다.

LG전자는 26일부터 28일까지(현지시간) 인도 방갈로르에서 열리는 인도 최대 냉난방 공조전시회 'ACREX 2015'에 참가해 시스템에어컨 전략 제품을 대거 선보인다고 밝혔다.

LG전자는 이번 전시회에서 200㎡ 규모 부스를 마련해 실외기 부식을 최소화 한 '멀티브이 4', 외부 기온의 영향을 받지 않아 안정적인 냉난방성능을 구현하는 '멀티브이 워터 4 쉘 앤 코일' 등 다양한 제품을 공개했다.

멀티브이 4는 고효율 인버터 컴프레서를 탑재해 기존 제품 대비 에너지효율을 약 20% 높인 것이 특징이다. 인도에서 판매되는 시스템에어컨 중 에너지 효율(COP 4.79)이 가장 높다.

이 제품은 외부 환경 변화에 따른 알루미늄 부식 현상과 물방울 맺힘 현상을 막아주는 코팅을 적용한 '오션 블랙 핀' 열교환기를 탑재했다. 또 외관 패널 등 주요 부품에 특수 코팅을 적용해 실외기 부식을 최소화해 높은 성능이 유지되도록 설계됐다. /정혜인기자

신예 에너지 리더 발굴 나서

에너지관리공단·LG전자·LG화학, 업무협약

에너지관리공단과 LG전자, LG화학은 26일 LG트윈타워에서 '에너지분야 사회적 기업가 육성 프로그램'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사회적 기업가 육성 프로그램이란 영업활동을 통해 수익창출과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사회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조직과 사회적 기업가를 지원하는 제도다.

에너지관리공단은 이번 협약을 통해 LG전자·LG화학과 에너지절약 인식확산에 공동의 목적을 두고 에너지 관련 사회적 기업가들의 성장을 지원할 예정이다.

공단은 기업가 양성을 위한 워크숍, 해외탐방 등을 지원하고, LG전자와 LG화학은 LG 소셜 펀드와 연계한 재정지원, 사회적 기업가 육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운영과 사회적 기업가로 발돋움하는데 도움이 되는 네트워크 구축 등을 돕는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회적 기업가의 혁신 아이디어는 에너지 소외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 등 이웃과 함께하는 '에너지 나눔 활동'에 활용된다. 또 오는 11월 에너지관리공단 주관으로 열리는 '대한민국 에너지대전'에도 전시돼 사회적 기업가들의 창업 아이템 판로 개척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LG전자·LG화학은 에너지관리공단의 사회 환원 캠페인 '에너지빼기 사랑더하기' 캠페인에 참여하여 전사차원의 에너지 절감 활동에도 힘쓰기로 했다.

/정혜인기자 hijung0404@

(왼쪽부터)이충학 LG전자 경영지원부문장 부사장, 나용환 에너지관리공단 부이사장, 박준성 LG화학 대외협력담당 상무가 26일 LG트윈타워에서 '에너지분야 사회적 기업가 육성 프로그램'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LG전자 제공

현대重, 올해부터 새식구 '해치'로 뽑는다

인재선발검사 자체개발… 상반기 대졸채용부터

현대중공업은 종합적 사고능력을 평가하는 인적성검사를 자체적으로 개발해 올해 신규인력 채용에 적용할 예정이라고 26일 전했다.

'해치(HATCH, Hyundai Heavy Industries Assessment Tool for Catching Hidden-talent)'로 명명된 이 검사는 직무능력과 직업성격을 묻는 총 600여개 문항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현대중공업은 오는 3월 2일부터 시작되는 상반기 대졸 신입사원 채용부터 이 시험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해치는 다른 기업의 검사와는 달리 종합적 사고능력을 묻는 종합의사결정이 추가된 것이 특징"이라고 말했다.

현대중공업만의 특화된 영역이라고 볼 수 있는 종합의사결정 부문에서 입사지원자들은 회의일정계획, 결재서류작성, 고객관리 등 제시된 상황의 정보들을 활용해 문제의 원인을 찾고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는 능력을 측정 받게 된다.

여기에 글로벌상식, 경제상식과 더불어 한국사 등 인문학적 소양을 묻는 항목이 추가됐다.

/양소리기자

한국타이어, '가장 존경받는 기업' 6년 연속 수상

글로벌 선도 타이어 기업 한국타이어(대표이사 서승화)가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이 발표한 2015년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타이어 산업부문 1위로 6년 연속 선정되었다.

특히 한국타이어는 제품·서비스의 질, 고객 만족을 위한 노력, 재무건전성 등의 항목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사회공헌활동, 인재육성 투자와 교육, 기업의 신뢰도 등 12개 항목 모두에서 1위를 차지하며, 타이어 산업부문에서 독보적인 기업으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번 공고히 했다.

이는 한국타이어가 기술력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바탕으로 소비자에게 최고 품질의 제품을 제공하며 리딩 글로벌 타이어 기업으로의 도약을 가속화한 결과로 풀이된다. 한국타이어는 독일의 3대 명차 브랜드의 다양한 차종에 신차용 타이어를 공급하고 있다. 특히 유럽과 미주지역의 대표적인 스포츠카에 신차용 타이어를 공급하는 등 글로벌 Top Tier 수준의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김종훈기자

콤팩트 몸매·파워풀 주행

렉서스가 가솔린 터보 4륜 구동 컴팩트 SUV NX200t AWD를 한국에 출시했다 /한국토요타 제공

렉서스 가솔린 터보엔진 탑재 사륜구동 'NX200t' 출시

렉서스가 가솔린 터보엔진을 탑재하고 사륜구동의 안정성을 발휘하는 콤팩트 스포츠형 다목적 차량(SUV) 'NX200t AWD'를 국내 출시한다.

렉서스는 26일 서울 송파구 한국도요타 복합 문화공간 'CONNECT TO'에서NX200t AWD의 신차 발표회를 갖고 국내 판매에 나섰다. 렉서스 NX200t는 새롭게 개발한 2.0리터 다운사이징 가솔린 터보 엔진을 탑재해 역동적 토크 컨트롤 AWD시스템이 발휘하는 동급 최강의 가속성능을 자랑한다.

수냉식 실린더 헤드에 하나로 결합된 '일체형 배기 매니폴드'(4 into 2, 4개의 배기관을 2개로 통합)와 트윈 스크롤 터보차저의 조합인 신터보 시스템은 렉서스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기술이다. 기존 터보 시스템의 단점으로 지적되어 온 배기가스 간섭으로 인한 터보랙을 최소화했다. 이밖에도 주행 조건에 따라 앞뒤 바퀴의 토크 배분을 100대0에서 50대50까지 자동으로 제어하는 다이나믹 토크 컨트롤 AWD 시스템이 전 모델에 기본 장착했다.

2.0리터 직렬 4기통 터보 엔진을 탑재한 신차의 파워트레인은 최고출력 238마력, 최대토크 35.7kg.m의 힘을 발휘하고 6단 자동 변속기와 맞물려 복합 9.5km/l(도심: 8.4/고속: 11.3)의 연비를 발휘한다.

렉서스 관계자는 "NX 200t는 가격 대비 뛰어난 성능과 편의 사양으로 각각 국내 수입차 최다 판매 하이브리드와 콤팩트 하이브리드 SUV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렉서스 ES 300h와 NX 300h에 이어 렉서스가 '4륜 구동 다운사이징 가솔린 터보'를 화두로 내놓은 야심작"이라고 말했다.

NX200t AWD의 국내 판매 트림은 슈프림(Supreme), F스포츠(F SPORT), 익스큐티브(Executive) 세 종류로 가격은 각각 5480만원, 6100만원, 6180만원으로 책정됐다.

/양소리기자 10sound@metroseoul.co.kr

현대차그룹·광주시 발산마을 도시재생 팔걷어

볼거리·체험거리 가득한 테마형 조성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가 광주시의 대표적 도심 공동화 지역인 발산마을에 문화, 산업, 예술을 접목해 자립가능한 창조문화마을로 탈바꿈시키는 사업에 착수했다.

현대자동차그룹(회장 정몽구)과 광주광역시가 자동차, 수소경제, 서민생활 등 3대 차별화된 키워드를 내걸고 지난달 27일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시킨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가 서민생활 창조경제의 새 모델을 제시하기 위한 지역재생 사업을 본격화한 것이다.

이번 사업은 국내 최초로 기업과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지역재생 사업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는 26일 광주시 발산마을(서구 양동 천변좌로 108번길 일대)에서 윤장현 광주시장, 유기호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장, 김종웅 기아차 광주공장장을 비롯해 지역주민, 기아차 광주공장 임직원 등 총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조문화마을 조성 사업 발대식을 가졌다.

발대식에 참석한 지역주민과 자원봉사자들이 플래카드를 들어보이고 있다. /현대차 제공

발대식에는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기아차 광주공장 ▲광주시 참여혁신단 ▲서구청 지역재생과 ▲발산동 주민자치센터 ▲광주문화재단 ▲사회적기업 프리즘 등 이번 사업의 7개 추진단이 함께 했다.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는 발대식에서 창조문화마을 조성 사업을 올해부터 내년까지 약 2년에 걸쳐 진행한다. 국내 최초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이뤄지는 문화예술 기반의 지역재생 사업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인근 기아차 광주공장의 참여와 봉사활동과 연계해 장기적 관점에서 연속성 있는 사업이 되도록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유기호창조경제혁신센터장은 "이번창조문화 테마마을은 볼거리, 즐길거리, 살거리, 먹거리, 일거리가 있는 주민주도형 창조경제 모델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 창업 등을 통해 실제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

/김종훈기자 fun@

동부하이텍 교환사채로 유동성 '숨통'

자사주도 처분… 중국 기업에 팔릴 우려 여전

동부그룹의 핵심계열사인 동부하이텍이 자사주를 처분하고 교환사채를 발행하는 등 운영자금을 마련하면서 숨통이 트이게 됐다. 국내 유일의 반도체 파운드리(수탁생산) 전문기업인 동부하이텍은 중국 파운드리 업체인 SMIC가 관심을 보이면서 시스템 반도체 부문에서 10년 넘게 기술을 축적한 한국 기업의 노하우가 중국에 넘어가는 게 아니냐는 업계의 우려도 낳고 있다.

26일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동부하이텍은 1997년 동부전자로 출발해 김준기 동부 회장이 애착을 갖고 키워온 기업이다. 2001년 이후 지금까지 투입된 투자금액만 2조원이 훨씬 넘는다. 동부하이텍에는 2001년부터 2조3000억원 이상의 차입금이 투입돼 현재 6000억원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이 기간 산업은행 등 채권금융기관에 지불한 이자만 1조 2000억원이 넘는다.

동부하이텍은 자사주 289만5753주를 주당 6216원에 장외 처분하기로 했다고 이날 공시했다. 처분 예정금액은 180억원이며 처분 예정일은 27일이다.

이와 함께 동부하이텍은 180억원 규모의 교환사채(EB)도 발행한다고 밝혔다. 교환사채란 일정시점에 발행기업 주식이 아닌 발행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타자주식과 교환할 수 있는 선택권이 부여되는 사채를 말한다.

교환사채 발행대상은 시너지투자자문이다. 교환사채의 표면 이자율은 0%, 만기이자율은 4%이며 사채만기일은 오는 2018년 2월 27일이다.

동부하이텍 부천공장 전경. /동부하이텍 제공

이번 교환사채 발행 목적은 운영자금 조달이다.

반도체 업계의 한 관계자는 "동부하이텍이 만일 중국 기업에 넘어간다면, 수많은 팹리스(반도체 설계 전문기업)들에도 상당한 여파가 미칠 것"이라며 "동부하이텍 매각은 재무구조 개선 등의 기업회생 논리 외 부분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동부하이텍은 자사주 처분과 교환사채 발행으로 회사 운영자금을 조달하고 재무구조를 견실하게 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남대종 하나대투증권 연구원은 "교환사채 발행으로 현금 자산이 늘어나면 운전자본 등 여러가지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회사 운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증권가에서는 동부하이텍이 지난해 연간실적으로 14년만에 영업이익 흑자를 기록하면서 매각 협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정혜인기자 hijung0404@metroseoul.co.kr

권오준 포스코 회장, 철강협회장 재선임

창립 40주년을 맞은 한국철강협회가 올해 철강업계가 참여하는 불공정무역 대책위원회를 신설, 운영해 불공정 수입재 대응에 집중할 계획이다.

철강협회는 26일 포스코센터 서관 18층 스틸클럽에서 권오준 회장 등 회원사 대표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48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2015년도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또 임기 만료된 권 회장을 재선임했다.

한국철강협회는 75년 7월 철강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가 경제발전과 선진화에 기여하고 회원 간 친목을 증진하기 위해 설립됐다.

철강을 제조하는 정회원 37개사와 특별회원 5개 업체 및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이날 확정된 사업계획에 따르면 철강협회는 올해 사업추진의 기본목표인 '철강산업 위기 극복과 재도약을 위한 지원강화'에 초점을 맞춰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키로 했다.

권오준 포스코 회장(오른쪽 두 번째). /철강협회 제공

철강협회는 핵심과제로 △불공정 수입재 차단을 위한 단계별, 체계적 대응 강화 △통상마찰 선제적 대응 및 주요국 협력강화 △환경 및 에너지 정책 변화에 적극 대처 △철강산업 미래 경쟁력 기반 확대 △회원사 맞춤형 서비스 지원 강화 등으로 정했다.

이날 총회에는 권 회장과 철강협회 오일환 상근 부회장, 현대제철 강학서 사장, 동국제강 남윤영 사장, 세아제강 이순형 회장, 고려제강 홍영철 회장, TCC동양 손봉락 회장, 세아베스틸 이승휘 부회장, 대한제강 오치훈 사장, YK스틸 오오미치 히데타카 사장, 김영진 환영철강 사장, 박재천 코스틸 회장 등 회원사 대표 20여명이 참석했다. /이정필기자 roman@

KT, 3가지 무선 네트워크 이용 '펨토셀' 개발

KT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모바일 월드콩그레스 2015(MWC 2015)'에서 하나의 펨토셀로 주파수분할방식 롱텀에볼루션(LTE-FDD)과 시분할방식 롱텀에볼루션(LTE-TDD), 와이파이(WiFi) 등 세 종류의 무선 네트워크를 동시에 서비스 할 수 있는 트리플모드셀(Triple Mode Cell) 기술을 세계 최초로 시연한다고 26일 밝혔다.

KT와 브로드컴(Broadcom)이 공동 개발한 트리플모드셀은 LTE-TDD의 2.3GHz 주파수와 LTE-FDD의 1.8GHz 주파수, 기가 와이파이의 5GHz 주파수를 지원하며 가입자는 이를 통해 각각 최대 110Mbps, 150Mbps, 450Mbps 속도로 다운로드 서비스 사용이 가능하다.

트리플모드셀이 상용화되면 전파가 닿기 힘든 실내 혹은 지하 공간에 여러 대의 장비를 복잡하게 설치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공간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 특히 가정에서는 하나의 펨토셀 설치만으로 LTE와 와이파이(WiFi) 서비스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어 고객 편의성도 증대된다. 펨토셀은 서비스 범위가 0.5~5㎞인 기존 이동통신의 기지국 보다 훨씬 범위가 작은 가정이나 사무실 등의 제한된 영역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세대 통신기술을 뜻한다. /유선준기자 rsunjun@

SKT-에릭슨, LTE↔5G 상호연동 성공

SK텔레콤과 에릭슨이 실제 사용 환경에서 4세대(4G) 롱텀에볼루션(LTE)과 5세대(5G) 기지국간 상호연동(Interworking)에 성공, LTE-5G의 '벽'을 허물었다.

SK텔레콤과 세계적인 통신 기술·서비스 기업인 에릭슨은 "스웨덴 시내 실제 사용환경에서 LTE와 5G 기지국이 혼합된 환경을 설정하고 움직이는 이동 과정에서 LTE-5G 기지국간 연동에 성공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실험 결과는 '모바일 월드콩그레스 2015(MWC 2015)' SK텔레콤 전시부스내 라이브(Live) 프레젠테이션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SK텔레콤은 이번 실험 성공으로 LTE와 5G 기지국간 망 전환(핸드오버)시 끊김 없는 고화질 비디오 스트리밍이 가능해졌다. 또 5G도입 초기 고객 체감품질 저하를 방지할 수 있는 핵심 기술(Key Technology)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4G보다 1000배 빠른 속도의 5G를 위해서는 100MHz 폭 이상의 연결대역 확보가 용이한 초 고주파 대역 활용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초 고주파는 주파수 특성상 대기 중 전송 손실이 많고 회절성이 떨어져 LTE 대비 상대적으로 더 좁은 지역에서 망 구축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5G 도입 초기 기존 LTE와 5G간 상호연동(Interworking)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는 통신업계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였다. SK텔레콤은 LTE/5G 상호 연동 기술의 국내 환경 검증과 2018년 5G 시범 서비스 시연을 위해 지속적인 기술 고도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유선준기자

효성, 탄소복합재 차량 개발에 소재 제공

효성은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창업공모전에서 탄소복합재 차량용 시트 (Frameless Seat) 개발로 최우수상을 받은 예비 창업자에게 창업아이디어를 개발로 연계할 수 있도록 탄소섬유와 아라미드 섬유 등 소재를 제공했다고 26일 밝혔다.

수제 자동차 제작 전문가인 이승민 씨가 개발한 탄소복합재 전기자동차는 24일부터 2주간 미래창조과학부 주관, 한국창의재단과 공군본부 주최로 진행 중인 '창조경제박람회 성과체험전'에서 첫 선을 보여 큰 관심을 모았다. 효성은 차체 프레임에 쓰인 고성능 탄소섬유 '탄섬(TANSOME)'과 자동차용 내장재로 쓰인 아라미드섬유 '알켁스(ALKEX)'를 제공해 차를 튼튼하고 가볍게 하는데 힘을 보탰다.

효성의 탄소섬유 사업을 관장하고 있는 조현상 산업자재PG장(부사장)은 "탄소섬유는 산업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이나 레저, 의료, 예술 분야 등 쓰임새와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탄소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 혁신 아이디어에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 밝혔다.

탄소섬유는 탄소가 92% 이상 함유된 섬유로, 철에 비해 4분의 1 수준의 무게, 10배의 강도, 7배의 탄성 등의 특성을 바탕으로 내부식성·전도성·내열성이 높다. 탄소섬유가 적용된 자동차는 강도는 높으면서도 무게는 줄어 안전하고 친환경적이다. 탄섬은 국내업체가 제작한 탄소섬유로는 처음 현대차가 지난해 제네바 모터쇼에서 선보인 미래형 컨셉카 '인트라도'에 쓰이기도 했다. /김종훈기자 fun@

본업 충실 정지선, 외도 정용진…승자는?

현대백화점, 아웃렛 등 유통망 확대… 신세계, 금호산업 인수 도전

"본업(本業)에 충실하라"는 말은 최고경영자(CEO)가 간직해야 할 경구로 가장 많이 제시되는 원칙이다.

본업에 충실해서 갖게되는 힘은 '본원적 경쟁력'이란 말로도 표현된다.

본원적 경쟁력을 창출하는 전략은 경쟁사보다 낮은 비용을 쓰는 비용우위, 비교 우위 상품을 통해 수익성과 고객 충성도를 높이는 차별화, 특정 고객층에 대한 집중을 통한 경쟁력 확보 등이 핵심이다. '본원적 전략'은 마이클 포터 미국 하버드 대학 교수가 지난 1985년 처음 쓴 용어다. 본업에 충실해 성공한 기업, 본업에 충실하지 않고 경험이 없는 분야에 진출해 실패한 국내외 기업들의 사례는 무수히 많다.

유통 빅3중 유통이 본업인 기업은 현대백화점그룹과 신세계그룹이다. 최근 본업이란 말을 가장 많이 떠올리게 하는 이도 정지선(43·**사진 왼쪽**) 현대백화점그룹 회장과 정용진(47·**오른쪽**) 신세계그룹 부회장이다.

SHINSEGAE

정지선 회장은 주력 사업인 백화점·홈쇼핑에서 최근 아웃렛·복합쇼핑몰·면세점 등으로 유통 채널을 확장하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 27일에는 서울과 인접한 경기 김포에 총면적만 16만5000㎡에 달하는 프리미엄아웃렛 1호점을 오픈했다. 현대백화점그룹이 선보이는 첫번째 프리미엄아웃렛이다.

하반기에도 수도권 최대 규모 복합 쇼핑몰인 현대백화점 판교점 오픈과 도심형 아웃렛(서울 송파 가든파이브) 영업이 예정됐다. 공을 들이고 있는 면세점 사업도 입찰 결과가 나오는 8월부터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내년 상반기엔 인천 송도 프리미엄아웃렛 개장, 현대백화점 압구정본점 증축 등에도 나선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의 공격적 행보도 눈길을 끈다. 정 부회장은 올 상반기 인수합병(M&A) 시장의 최대 매물인 금호산업 인수전에 도전장을 냈다. 지난 25일 인수의향서(LOI) 접수 마감일에 참여 의사를 밝혔다. 이마트와 신세계백화점은 2조원 규모의 삼성생명 주식 11.8%를 보유하고 있어 자금력 측면에서 베팅할 충분한 여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웨스턴조선호텔·면세점·백화점 등과 금호산업이 100% 지분을 보유한 금호터미널과의 시너지가 기대되고 있다.

하지만 정용진 부회장의 행보는 정지선 회장과는 사뭇 다르다.

정지선 회장의 사업 확대 핵심에는 '유통'이란 본업이 있다. 인수합병한 패션기업 한섬과 가구업체 현대리바트도 백화점 유통망을 통해 판매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금호산업은 타이어 제조·판매를 주목적사업으로 1960년 설립된 회사다. 1999년엔 건설업과 운송업을 하는 금호건설을 흡수합병했다. 현재 아시아나항공의 대주주로 지분 30.08%를 보유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금호터미널(100%), 에어부산(46.00%), 금호사옥(79.90%), 아시아나개발(100%) 등을 계열사로 두고 있다. 1930년 일본 미스꼬시백화점 경성지점으로 시작해 한국 유통 역사를 써 온 신세계의 본업과는 완연히 다른 업종의 기업이다.

사실 신세계의 외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계열사 신세계푸드, 신세계인터내셔널 등 음식과 패션사업을 강화하고 있는 정 부회장은 최근 수제맥주집과 아이스크림점 진출도 시도하며 골목상권 침해 논란에 서 있다.

특히 정 부회장이 직접 챙기는 사업은 스타벅스처럼 유통 본업과는 동떨어져 해외에서 들여오고 있다는 것도 문제다. 아이스크림점은 일본 업체와 기술제휴를 한 브랜드다. 계열사 신세계인터내셔널의 패션사업도 국내 패션산업 생태계를 만들기보다 해외 브랜드 수입에 열을 올리고 있다.

업의 본질에 충실하지 못하다 보니 신세계는 유통 맏형이란 수식어가 무색하게 시장 트렌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경쟁사 롯데, 현대가 TV홈쇼핑 등에 진출하며 온라인 사업을 강화하고 있지만 정 부회장은 TV홈쇼핑은 손도 대지 못하고 있다. 남들이 약 30년전에 국내에 도입하기 시작한 편의점 사업도 지난해에야 시작했다. 뒤늦게 진출한 착한 편의점 위드미는 골목상권 침해 논란도 일고 있다.

한때는 국내 최초의 백화점과 할인점을 연 신세계는 롯데에 유통 맏형 자리를 내준데 이어 이제 현대에도 밀리는 모양새다. 국내 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역할을 하지 못하며 갈수록 '뻘짓'만 하고 있다.

금호산업은 국내 20대 기업중 유일하게 남아있는 호남기업이다. 자유경제시대에 웬 지역주의냐고 할 수 도 있지만 30년 넘게 소외되며 씨가 말라가고 있는 호남기업에 대한 지역내 정서는 그렇지 않다. 신세계가 본업을 이탈해가며 무리하게 나설 일이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염지은기자 senajy7@metroseoul.co.kr

김치 中 수출길 열려

중국 위생기준 개정

한국의 대표적 먹거리인 김치가 올해 중국에 상륙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중국의 위생기준당국인 중국 국가위생계획생육위원회는 지난 11일 홈페이지를 통해 자국의 절임 채소인 '장옌차이'에 대한 위생기준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중국 당국은 절임 채소에 대해 대장균군 수가 100g당 30마리를 넘지 않도록 요구하던 기존 자체 위생기준을 국제기준에 맞춰 변경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절임 채소 샘플 5개를 검사해 각각의 샘플에서 대장균군 수가 10마리 이하로 나와야 하되 다만 샘플 2개에서는 각각 최소 10마리에서 최대 1000마리까지 대장균군 수가 나와도 적합하도록 위생기준이 바뀐다.

특히 김치 등 비멸균 발효제품에 대해서는 아예 이렇게 바뀌는 위생기준 자체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김치에 대해 더는 대장균군 검사를 하지 않겠다는 말이다.

한편 중국 당국은 이 개정안에 대해 3월말까지 업계 등 각계의 의견을 받은 뒤 변경된 위생기준을 조만간 시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보라기자 bora6693@

현대百 김포 아웃렛, 프리미엄아웃렛의 新랜드마크로

"매출 4000억원·연간 600만명 찾는 관광명소"

현대백화점그룹이 경기도 김포에 첫 프리미엄아웃렛을 열며 아웃렛 사업 경쟁에 나섰다.

김영태 현대백화점 사장은 26일 열린 김포 프리미엄아웃렛 1호점 간담회에서 "김포 프리미엄아웃렛 김포점은 단순한 쇼핑공간이 아닌 가족과 함께 쇼핑·문화·휴식 등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공간"이라며 "경쟁 아웃렛에서 경험할 수 없는 입지적 강점과 차별화된MD 및 가족단위 중심의 다양한 콘텐츠 등을 통해 국내 프리미엄아웃렛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을 열게 된 김포 프리미엄아웃렛은 연면적 약 15만3800㎡(4만6500평), 영업면적 약 3만8700㎡(1만1700평)로 지하 2층~지상 3층 규모다.

현대백화점은 경쟁업체에 비해 늦게 뛰어든 만큼 '차별화'에 주안점을 뒀다. 김포 프리미엄아웃렛에 입점하는 브랜드는 총 239개로 인지도가 높은 국내외 브랜드들로 채웠다. 특히 전체 브랜드 중 해외명품 브랜드 구찌·버버리·페라가모 등 총 54개로 경쟁 아웃렛과 비교해 최대 20여개나 많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현대백화점그룹 제공

또 반경 4km 내에 지하철 5호선(방화·개화산·김포공항역)과 9호선(개화·김포공항역)이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하며 개화역에선 버스를 이용해 아웃렛을 방문할 수 있다. 김포국제공항·인천국제공항과도 가까워 국내 고객 외에 외국인 관광객 유치도 기대하고 있다.

특히 아웃렛 최초로 2500㎡(740평) 규모의 '프리미엄 식품관'을 별도로 운영한다. 코코로벤토·포브라더스를 비롯해 홍원막국수·한솥냉면·전주선비빔·알티씨모, 모모야 등이 대표적이다. 또 아웃렛 중 전체 주차대수(3100대)의 70% 가량을 지하 주차장(2100대)으로 운영해 고객들에게 최적의 쇼핑 동선을 제공할 계획이다.

현대백화점은 지역사회와 기업이 서로 상생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는 방침이다. 이미 전체 근무 인원의 20% 가량을 김포시민으로 채용했으며, 향후 신규 인구 유입과 주변 상권활성화를 통해 김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김영태 사장은 "개점 첫1년간 매출 4000억원, 연간 600만명이 찾는 관광명소로 거듭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지반 침하에 대한 논란도 언급했다. 김 사장은 "수자원공사와 전체적인 점검을 통해 안전검사를 통해 이상이 없게 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대백화점은 올해 9월 서울 송파구 장지동 가든파이브에 도심형 아웃렛 2호점을 2016년 인천 송도에 프리미엄아웃렛 2호점을 여는 등 점포를 계속 늘려갈 계획이다. /김보라기자

한국인의 true friend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15-00661호 (2015-02-04 ~ 2016-02-03)
깊이가 다른 금융은
마음의 준비부터 다릅니다
먹을 가는 시간이 길어진다는 건
그만큼 생각이 깊어진다는 뜻입니다
더욱 신중하게, 더욱 겸손한 마음으로
한국투자증권이 금융의 내일을 열어갑니다
true friend
한국투자 증권

옐로우스톤 와팬. /이젠벅 제공

봄 맞은 아웃도어 업계 자연주의 디자인 경쟁

봄 시즌을 맞아 아웃도어 업계가 자연의 모습을 모티브로 한 제품을 잇따라 출시하고 있다. 국립공원과 같이 아름다운 자연을 느낄 수 있는 지역을 모티브로 하거나 숲·새·꽃·곤충 등을 디자인적으로 표현해 자연의 모습을 제품에 담았다.

이젠벅은 광대하고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을 담고 있는 미국 옐로우스톤 국립공원을 모티브로 한 방풍자켓 '옐로우스톤 와팬'을 출시했다. 옐로우스톤 국립공원은 세계 최초의 국립공원으로 독특한 자연지형과 다채로운 자연경관이 펼쳐진 곳으로 유명하다. 재킷에 국립공원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자연의 모습을 딴 와팬 장식을 가슴이나 팔 등에 배치하고, 지도 프린트 안감을 매칭해 재미요소와 디테일을 동시에 살렸다.

코오롱스포츠는 자연으로부터 영감을 받아 탄생한 2015 봄·여름 시즌 컬렉션을 발표했다. 눈 덮인 산 등 자연의 모습을 그래픽으로 표현한 '디지털 마린', 얼룩말과 특정 도시의 지도를 섞은 그래픽과 코뿔소를 연상시키는 그래픽 등을 구현한 '네오 사파리', 곤충의 구조적인 특징을 디자인으로 나타낸 '사이버 인섹트' '테크노 캠핑' 네 가지 디자인 테마로 구성했다.

센터폴도 유네스코 자연유산으로 지정돼 있는 스위스 라보 지역에서 이름을 딴 '247 라보' 트레킹화를 출시했으며 엠리밋은 겨울·봄 시즌 제품으로 숲·꽃 등의 프린트가 들어간 다운 제품 '제로웨이트'를 선보였다.

키즈 제품에도 자연을 모티브로 한 키즈 제품도 출시되고 있다.

K2 키즈는 '숲 속 학교' 콘셉트로 아이 특유의 발랄함을 표현한 제품을 내놓았다. 컬러와 패턴은 식물 잎 등 자연의 특징적인 선을 인체의 역동적인 곡선으로 표현한 것이 특징이다.

업계 관계자는 "일상 생활 속에서 입을 수 있는 세련된 디자인의 아웃도어 제품에 자연의 아름다움을 담아 마치 도심 속에서도 자연을 즐기는 듯한 느낌을 주는 제품들이 출시되고 있다"며 "기능성과 더불어 차별화된 디자인의 제품으로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 잡고자 하는 업계의 노력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김수정기자 ksj0215@

아마존 다음달 한국 진출?

amazon.com

해외직구 편리· 안방잠식 우려

글로벌 유통공룡 '아마존(amazon)'이 다음달 한국에 진출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목이 쏠리고 있다. 막강한 자본력과 탄탄한 인지도를 기반으로 들어오게 될 아마존의 진출이 가시화 되면서 유통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선 '진출설'이라는 입장도 보이고 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아마존은 3월 중 한국지사를 설립하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아마존은 2월 초부터 국내 정보통신기술 업계의 전현직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채용에 나섰고 면접 합격자들 대상으로 서울의 한 호텔에서 최종 대면 면접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마존은 지난해 말 강남구 테헤란로 GS타워에 970평 규모의 사무실 임차 계약을 2024년 2월까지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해 구글코리아 사장을 재임한 염동훈씨를 한국지사장에 선임한 바 있다.

아마존의 진출로 가뜩이나 해외 직접 구매 증가와 내수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통업계는 매출에 큰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가장 고민이 큰 곳은 국내 유통 시장에 진출하는 즉시 오픈마켓과 소셜커머스 등이다. 국내 업체들이 7% 안팎의 판매수수료를 받고 있지만 아마존은 수수료를 없애고 광고 수익으로 서비스를 운영한다. 결국 게임이 안될 것이라는 게 업계의 대체적인 중론이다.

더욱이 10년만에 매출이 뒷걸음질 하는 백화점은 해외 직구에 대한 해법을 찾기도 전에 아마존과 정면 승부를 벌여야 하는 상황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매출 규모에 있어서 이베이를 압도하는 아마존이 한국 시장에 진출한다면 파급력이 엄청날 것"며 "소비자로서는 해외 직접 구매가 쉬워지고 국내 제조업체는 이들을 통해 해외 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한다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한국 시장을 통째로 넘겨줄 위험도 배제할 수 없다"고 내다봤다.

한편 업계 안팎에선 아마존의 국내 진출에 대한 '설'일 뿐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오픈마켓 한 관계자는 "과거에도 사람은 계속 채용해왔고 아직까지 확정은 아닐 것"이라며 "아마존의 국내 사업 진출에 관련해 구체화가 되지 않아 지금 드릴 말이 없다"고 일축했다.

/김보라기자 bora6693@metroseoul.co.kr

그칠줄 모르는 '허니 열풍'

오리온·맥도날드 가세

'허니버터칩'을 계기로 달콤한 맛에 대한 선호도가 날로 높아지면서 식품업계가 허니맛 상품들을 잇따라 출시하고 있다

오리온은 대표적인 감자 스틱 제품인 '오! 감자'에 달콤한 꿀과 고소한 우유를 넣은 '오! 감자 허니밀크'(사진)를 출시했다. 이 제품은 최근 스낵계에 불고 있는 '달콤 트렌드'에 우유의 부드러운 맛을 더해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맛이라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맥도날드는 허니버터맛 후렌치 후라이를 출시하고 27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열흘간 한정 판매한다. 맥도날드 후렌치 후라이에 꿀과 버터가 어우러진 양념을 곁들인 제품이다.

/김보라기자

롯데망고주스 중국서 인기 '쑥쑥'

롯데칠성음료의 과일주스 '롯데 망고주스'가 중국의 결혼 문화를 활용한 판매전략에 힘입어 매출이 큰 폭으로 성장했다.

26일 롯데칠성음료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에 롯데망고주스 약 3000만개(180㎖캔 기준)를 수출했다.

롯데칠성음료는 롯데망고주스의 성공 요인이 망고 특유의 달콤한 맛과 함께 비타민A와C·섬유질 등이 풍부한 과일 본연의 장점, 그리고 중국 결혼 문화를 망고주스와 접목해 중국 20~30대 예비신랑·신부를 타깃으로 한 웨딩 마케팅이 잘 어우러진 결과로 분석하고 있다.

여기에 해외 파트너와의 유대 강화,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중국 내 식품 한류 등도 도움이 됐다고 회사는 분석했다. /김보라기자

잘나가던 '아웃백' 폐점 잇따라

국내 패밀리 레스토랑의 화려한 전성기를 이끈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이하 아웃백)가 하나 둘 문을 닫고 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아웃백은 지난해 11월 초 질적 성장을 위한 사업계획을 발표한 뒤 같은 달 17일부터 올해 1월 30일까지 전국 34개 매장을 차례로 폐점했다.

약 두 달 반 동안 문 닫은 매장 수는 지난해 11월 초 기준 아웃백 전체 매장(109개)의 31.2%에 달한다.

영업 종료 매장에는 명동중앙점·청담점·광화문점·홍대점·종로점(서울), 센텀시티점·연산점(부산), 칠곡점·상인점(대구), 충장로점(광주) 등 도심 대형 매장이 대거 포함됐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기존 매장을 철수했다는 게 아웃백의 설명이다. 수익성이 떨어지는 매장을 과감하게 정리해 양보다 질을 우선하겠다는 전략이다.

아웃백 측은 "앞으로 규모 확장보다는 매장 품질개선, 혁신적인 '플래그십 매장' 개점, 메뉴 개발 등 질적인 부분에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보라기자

신제품

일동후디스, '뉴트리셀프'

일동후디스가 세계적 명성의 건강식품인 10대 슈퍼푸드를 원료로 만든 '뉴트리셀프' 8종을 출시했다.

출시된 제품 중 퀴노아오트·치아씨드·렌틸콩·그릭요거트 등 슈퍼푸드 파우더 4종은 100% 슈퍼푸드 또는 슈퍼푸드에 건과일과 견과류를 더해 만든 제품이다.

키즈밀·마더밀·시니어밀·패밀리밀 등 슈퍼푸드 균형영양식 4종은 온 가족의 영양보충에 필요한 영양소를 보강한 제품이다.

아식스, 8色 워킹화 'G1'

아식스 코리아는 2015년 봄·여름 시즌을 맞아 한층 업그레이드 된 워킹화 'G1' 8종을 출시했다.

새롭게 출시된 아식스 'G1'은 아식스만의 고유한 기능인 '젤'을 중창 내부에 탑재해 발 뒤꿈치에 가해지는 충격을 흡수·분산시켜 편안한 착화감을 제공한다.

특히 전족부와 후족부의 쿠션성을 극대화했다. 경도가 다른 미드솔을 2중으로 전개해 착용자가 편안하면서도 안정적인 착화감을 느낄 수 있도록 했다.

8종의 캔디컬러로 출시돼 봄·여름 산뜻한 스타일링에 제격이다.

마운틴하드웨어 '재킷'

아웃도어 브랜드 마운틴하드웨어는 '웨트 덕 재킷'을 출시했다.

모자와 어깨 등 비가 올 때 가장 먼저 젖게 되는 부위에 방투습 기능성 드라이큐 3레이어 소재를 사용했다. 움직임이 많아 신축성이 필요한 몸통과 옆구리 부분엔 상하좌우 전 방향으로 스트레치 기능을 갖춘 드라이큐 액티브2.5 레이어 소재를 사용했다.

특히 후드와 어깨의 방투습 소재는 7데니어의 가벼운 원단을 사용해 기존 방수 재킷보다 가벼운 착용감을 느낄 수 있다.

국가장학금 접수하세요

한국장학재단, 내달 11일까지 2차 신청 접수

한국장학재단이 26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14일간 2015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 접수를 받는다.

신청 대상은 신입생과 복학생, 편입생과 1차 미신청 재학생으로 신청을 원하는 대학생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홈페이지 접수는 24시간 가능하며 신청 마지막날인 3월 11일은 오후 6시까지만 가능하다.

아울러 올해 국가장학금은 총 3조6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425억원 증액됐다. 먼저 Ⅰ유형(소득연계 차등지원)은 소득 8분위 이하이며 성적 기준을 충족하는 학생에게 소득분위별로 차등 지원된다. Ⅱ유형(대학 자체노력 연계지원)은 대학별 자체 지원기준에 따라 장학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재단은 저소득층 학생에게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와 함께 재단은 지방대학 우수 신입생에게는 지방인재장학금을 통해 등록금 전액을 지원할 예정이며 소득 8분위 이하 자녀 중 셋째 자녀 이상의 대학생이 받을 수 있는 다자녀 국가장학금의 수혜대상은 기존 1학년에서 2학년까지 확대됐다.

또 재단은 국가장학금을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지원하기 위해 가구원의 소득 확인을 위한 정보제공 동의 절차를 도입했다. 학생이 장학금을 신청한 후 가구원이 재단 홈페이지에서 동의 신청을 해야만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단 학생을 제외한 가구원이 해외 체류와 입원, 수술 등으로 공인인증서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재단의 안내에 따라 우편 등으로 동의서 제출을 할 수 있다. 가구원 동의는 3월 16일까지 완료해야 한다.

재단 관계자는 "신청 마감일은 홈페이지 접속자가 많아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마감일 이전에 신청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1599-2000

/황재용기자 hsoul38@metroseoul.co.kr

/이화여대 의료원 제공

이화의료원, 러시아에 대표단 파견

러시아 환자 유치 위한 전기 마련

이화여대 의료원(원장 이순남)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해외 환자 유치 대표단을 러시아로 파견해 러시아 의료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화의료원은 백남선 이대여성암병원장과 심기남 국제협력실장 등으로 구성된 대표단이 이달 러시아 블라디보스톡과 아르쫌, 이르쿠츠크 등을 방문해 환자 유치를 위한 다각적인 마케팅 활동과 함께 의료원의 선진 의료기술을 전파했다고 26일 밝혔다.

특히 이들은 지난해 MOU를 체결한 바 있는 태평양 주립 의대(Pacific State Medical University)를 찾아 오는 5월 블라디보스톡 국제암심포지엄 참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지원 의료진 연수 등을 논의했다. 또 백 원장은 현지 교수와 학생들에게 유방암 수술법과 최신 지견 등을 소개하기도 했다.

아울러 대표단은 의료관광 에이전시 4개사와 협력 관련 논의를 거쳐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백 원장은 "이번 방문을 통해 러시아 환자 유치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했다. 체계적인 의료서비스 구축으로 해외 환자를 적극 유치하는 동시에 우리의 선진 의료기술을 지속적으로 전파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황재용기자

강강술래 "한우사골곰탕으로 기력 보충"

뮤지컬 티켓·도서·샴푸 증정 홈페이지 이벤트

외식문화기업 강강술래는 면역력을 높이고 기력 보충에 도움이 되는 한우사골곰탕 할인행사를 벌인다.

강강술래는 이달 말까지 온라인쇼핑몰(sullaimall.com), 전화주문(080-925-9292)을 통해 100% 한우사골곰탕(500㎖·10팩·20인분)을 약 50% 할인된 3만6000원에 판매한다.

같은 기간 갈비탕선물세트(500㎖·7팩·14인분)는 3만9500원에, 육개장선물세트(500㎖·7팩·14인분)는 2만9000원에 각각 30% 할인 판매한다. 레토르트 방식을 적용해 상온에서 6개월 동안 보관 가능하며, 직접 냄비에 붓고 끓이거나 봉지 째 데워 바로 먹을 수 있다.

한편 이달 말까지 홈페이지(www.sullai.com) 이벤트에 신청글을 남기면 추첨을 통해 뮤지컬 '로빈훗' 티켓, 리시리 샴푸&헤어크림, '가족이 건강해지는 사계절 해독밥상' '나는 세계역사에서 비즈니스를 배웠다' 등의 길벗 추천도서를 증정한다.

/김수정기자 ksj0215@

/LIG손해보험 제공

LIG손보, STAR 청약 시스템오픈

LIG손해보험은 업계 최초로 빅데이터를 활용한 보험 청약시스템 'STAR 청약 시스템'을 오픈했다고 25일 밝혔다.

'간편하고(Simple), 쉽고(Easy), 똑똑하게(Inteligent)'라는 컨셉 하에 만들어진 이 시스템은 사용자 경험 기반(UX, User Experience) 환경 적용과 빅데이터를 도입했다.

이 시스템을 활용하면 회사는 고객들의 매월 100만건 누적 청약 정보를 바탕으로 가입자 성별, 연령, 급수별 최적화된 유형을 바로 추천해줄 수 있다.

김강현 LIG손보 장기보험담당 상무는 "청약설계 시스템은 회사가 아닌 설계사와 고객이 이용하는 중요한 영역으로 항상 사용자 관점에서 개선돼야 한다"며 "업계 최초로 시도되는 빅데이터 기반의 추천 설계는 고객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김형석기자 khs84041@

나뚜루팝, 유기농 우유로 만든 '봄날의 핑크밀크' 출시

최고급 천연 프리미엄 아이스크림 전문점 나뚜루팝이 신제품 '봄날의 핑크밀크'를 다음달 출시한다.

'봄날의 핑크밀크'는 국내 최고의 프리미엄급 우유를 생산하는 범산목장의 유기농 우유를 원료로 사용했으며 상큼한 딸기맛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가격은 싱글컵 기준 2700원이다.

신제품 출시와 함께 '베리베리 사랑해' 이벤트를 진행한다. 신제품 봄날의 핑크밀크 싱글퀸컵(정가 3500원)을 3000원에 판매하며 3월 1일부터 7일까지 멀티플컵 구매 시 신제품 봄날의 핑크밀크를 담은 트리플컵(정가 6700원)을 3000원에 구매할 수 있는 이벤트다.

나뚜루팝 관계자는 "프리미엄 유기농 우유와 산뜻한 딸기로 만든 봄 시즌 제품을 선보이게 됐다"며 "봄기운 가득한 나뚜루팝 신제품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수정기자

리그 오브 레전드 전설 등극 '한걸음'

135주 연속 점유율 1위 달성…리그 활성화로 역대 1위 눈앞

'리그 오브 레전드(LoL)'가 새로운 전설을 써내려가고 있다.

무려 135주 연속 PC방 점유율 1위를 달성하며 엔씨소프트의 '아이온'이 세운 역대 최고 기록에 한 걸음 다가섰다. 특히 2위와는 무려 2배 가까운 점유율 차이를 보이고 있어 LoL의 전설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PC방 게임순위 집계사이트인 게임트릭스는 PC 점유율을 집계한 결과, 라이엇게임즈의 'LoL'이 37.6%의 점유율로 1위를 차지했다고 26일 밝혔다. 무려 135주 연속 1위다. 2위인 서든어택(20.3%)과의 격차는 무려 17.3% 포인트다. 3위인 피파온라인3(7.52%)보다는 5배나 많은 점유율이다.

이에 따라 업계는 아이온이 세운 역대 최고 기록인 160주 연속 1위를 LoL이 충분히 뛰어넘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현재 추세라면 LoL은 8월 중순 160주를 넘어 200주 연속 1위에 도전하게 된다.

LoL의 이같이 놀라운 기세는 2013년 11월 6일 45.06%라는 역대 최고 점유율을 기록했을 때부터 점쳐졌다. 이후에도 30%대 중후반의 점유율을 꾸준히 유지하면서 지난해 중순에는 기존 2위인 1인칭슈팅(FPS)게임 '서든어택'의 106주 연속 1위 기록을 뛰어 넘기도 했다.

◆이용자 중심 운영 팬들 사랑으로

라이엇게임즈는 올해 이용자 중심 운영을 강화해 LoL의 열기를 더욱 끌어올릴 계획이다.

우선 게임 내 유료 아이템 구매에 대한 플레이어의 선택의 자유를 존중하는 부분 유료화 정책을 도입해 게이머들의 호응을 받고 있다. 특히 아이템 구매와 관계없이 10개의 무료 챔피언 캐릭터를 제공해 누구나 손쉽게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한 점도 1위 질주에 큰 힘을 보태고 있다.

e스포츠 활성화도 눈에 띈다.

아마추어 플레이어부터 세미프로, 프로 선수까지 이어지는 'e스포츠 에코시스템'을 통해 LoL을 즐기는 누구나 e스포츠 경기를 관람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지난해 10월 서울 상암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세계 대회인 '2014 시즌 LoL 월드 챔피언십'에는 무려 4만 명 이상의 유료관중이 몰려 업계를 깜짝 놀라게 했다.

라이엇게임즈 관계자는 "LoL의 식지 않는 인기 비결 중 여타의 게임들과 구분되는 것이 바로 라이엇게임즈의 '플레이어 중심(Player-focused)' 기업 철학에 있다"며 "'플레이어로부터 가장 사랑 받는 게임 회사'를 지향하며 모든 구성원들이 플레이어 만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국명기자 kmlee@metroseoul.co.kr

게임순위 2015년 2월 25일

순위		게임정보	점유율
1	-	135주 1위 라이엇 게임즈 라이엇 게임즈 리그 오브 레전드	37.56%
2	-	서든어택	20.27%
3	-	피파온라인3	7.52%
4	-	스타크래프트	3.11%
5	▲1	던전앤파이터	2.42%
6	▼1	아이온	2.37%
7	-	리니지	1.97%
8	-	디아블로 3	1.9%
9	-	블레이드 & 소울	1.55%
10	-	워크래프트 3	1.41%

뜨거워지는 야구 게임

프로야구 개막까지 한달

프로야구 개막이 한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야구 게임 열기가 고조되고 있다.

엔트리브소프트는 모바일야구 게임 '프로야구 6:30 for Kakao'(프로야구 육삼공)의 비공개 시범 테스트를 26일 시작했다. 지난해 '지스타 2014'에서 '프로젝트 H2'로 소개된 이 게임의 이름은 국내 프로야구 경기가 열리는 오후 6시 30분에서 착안했다.

엔트리브소프트는 각 구단의 선수를 광고 모델로 동시 발탁해 화제를 모았다. 프로야구 육삼공은 최형우(삼성), 홍성흔(두산), 이호준(NC), 고동진(한화), 이택근(넥센), 이진영(LG), 이범호(기아), 신명철(KT), 박진만(SK), 박준서(롯데) 등 지난 시즌 프로야구 10개 구단 주장들과 함께 서재응 프로야구선수협회장을 모델로 선정했다.

넷마블게임즈는 모바일야구게임 '마구마구2 for Kakao' 업데이트를 벌였다.

1990년대 큰 인기를 누린 태평양 돌핀스, OB 베어스, 쌍방울 레이더스, 빙그레 이글스 등 추억의 구단과 당대 유명 선수를 프로야구 시즌 겨냥 신규 콘텐츠로 선보인 것이다. 이밖에 국가대표 올스타, 월드 대표 올스타, 아시아 대표 올스타 등 3개의 대표 팀을 하나로 통합해 이용자들이 보다 쉽게 세트덱을 만들고 보너스 능력치를 획득할 수 있게 했다.

한지훈 넷마블 본부장은 "야구 시즌 개막 준비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게임 곳곳에 재미 요소를 더했다"면서 "과거 활약했던 전설의 선수들로 팀을 꾸려 '마구마구2'를 즐기면서 색다른 재미를 맛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윤희기자 unique@

건담 마니아 모여라

반다이코리아 SD건담 신작 공개

전 세계적인 인기 캐릭터 'SD건담'이 새로운 옷을 입고 한국 시장을 공략한다.

반다이코리아는 26일 서울 중구 소공동에 위치한 웨스틴 조선 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SD건담을 활용한 온라인게임 'SD건담 넥스트 에볼루션'과 모바일게임 'SD건담 슈터'를 공개했다.

'SD건담 넥스트 에볼루션'은 3대의 기체가 한 소대가 되어 보스를 공략하는 MO-액션RPG다. 모든 건담의 원작 애니메이션을 스토리 모드, PVP 모드로 플레이 할 수 있다. 특히 'AI동료' 시스템을 도입해 오프라인 상태인 친구의 대표 유닛을 활용해 게임을 즐기는 것도 가능하다.

SD건담들이 펼치는 호쾌한 전투를 짜릿한 손맛과 함께 즐길 수 있다.

'SD건담 슈터'는 나만의 강력한 건담 소대로 적을 섬멸하는 짜릿한 전략 슈팅RPG다. 전 시리즈를 아우르는 다양한 기체를 수집해 육성시켜는 재미가 쏠쏠하다.

에모토 요시아끼 반다이코리아 대표는 "'SD건담 넥스트 에볼루션'과 'SD건담 슈터'는 반다이코리아가 한국에서 처음 서비스하는 게임"이라며 "반다이코리아의 노하우가 집결된 퀄리티 높은 유닛 디자인과 기체마다 각각 고유의 개성 넘치는 매력을 지니고 있다"고 말했다.

'SD건담 넥스트 에볼루션'은 올해 3월 비공개시범서비스(CBT)를 진행한 후 5월 중 공개시범서비스(OBT)에 들어갈 예정이다. 'SD건담 슈터'는 3월 중 구글 플레이를 시작으로 애플의 iOS를 통해서도 정식 출시될 계획이다.

이에 앞서 반다이코리아는 'SD건담 넥스트 에볼루션'(www.sdgn.co.kr), 'SD건담 슈터'(shooter.bandaimobile.co.kr) 홈페이지를 통해 비공개 테스트 모집과 사전등록을 진행하고 있다.

/이국명기자

"제 안에 '소년' 있대요… 호호호"

'7번방의 선물'로 얼굴 알린 신인

새가 되고픈 여인 철학적 캐릭터

눈이 좋은 배우라는 말 듣고 싶어

'조류인간'으로 영화 첫 주연

정한비

26일 개봉하는 영화 '조류인간'(감독 신연식)은 새가 되겠다며 사라진 아내와 그런 아내를 15년 동안 찾아 헤맨 한 소설가의 이야기다. SF영화에서 볼법한 독특한 설정이지만 영화는 마치 한 편의 문학작품처럼 흥미로운 구성으로 호기심을 자극하며 관객에게 정체성에 대한 깊은 고민을 던진다.

영화의 중심에는 새가 되기 위해 힘든 여정도 마다하지 않는 여인이 있다. 맑은 눈빛, 그리고 기대에 찬 얼굴로 독특한 설정의 역할을 한층 신비롭게 만드는 인물이다. 영화 '7번방의 선물'에서 갈소원이 연기한 예승이의 선생님으로 얼굴을 알린 신인 배우 정한비(29)가 바로 이 여인을 연기했다.

극중 이름도 정한비의 본명을 딴 한비다. 신연식 감독은 '배우는 배우다' 작업 당시 만난 정한비의 모습을 보고 인물을 만들고 시나리오를 썼다. 배우라면 누구나 기다리게 되는 첫 주연의 기회였다. 난해하면서도 흥미로운 시나리오였음에도 선뜻 출연을 결심할 수 있었던 것은 신연식 감독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다.

물론 독특한 설정을 이해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다. "감독님은 제가 가진 현실과 이상의 괴리에 빗대어 캐릭터에 접근하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가진 고민이 생각만큼 이상적이지 않더라고요(웃음). 오히려 1차원적으로 생각해야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패러글라이딩도 하고 새에 대한 정보도 찾으면서 진짜 새가 되기 위해 노력했어요."

영화 속에서 한비는 새가 되기 위해 눈 덮인 산길을 헤매면서도 늘 희망과 기대에 찬 표정을 보여준다. 반면에 과거 회상 신에서 그려지는 한비의 어두운 표정에서는 그녀가 얼마나 메마른 삶을 살아왔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그 표정의 대비는 극중 한비에게 새라는 정체성이 얼마나 중요한 고민인지를 느끼게 해준다. 그것은 누구나 살면서 한번쯤 던지게 되는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이기도 하다.

정한비 또한 이와 비슷한 고민을 던지며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 고민은 배우가 된 뒤 더 커졌다. "연기 전공도 아닌 제가 배우가 된 건 정말 우연과도 같았어요. 그래서 연기를 시작한 뒤 1년 동안 정말로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치열하게 고민했죠. 그런 경험이 '조류인간'에도 알게 모르게 도움이 됐다고 생각해요." 고민 끝에 선택한 배우의 길인만큼 후회는 없다. "가끔은 힘이 부칠 때가 있기도 해요. 하지만 배우를 안 하면 과연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미련도 많이 남을 것 같고요. 인생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계속 연기를 하고 싶어요."

신연식 감독은 정한비와의 첫 만남에서 느낀 '엘레강스'한 인상에서 '조류인간'의 조용하고 차분한 한비 캐릭터를 만들어냈다. 그러나 실제 정한비는 영화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환한 웃음과 장난기가 눈에 띄었다. "낯가림이 있기는 한데 친해지면 그렇지 않아요. 친구들은 제 안에 '소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웃음)." 또한 그는 독립영화의 열렬한 관객이기도 하다. 개봉한 독립영화는 물론 미장센단편영화제 등 영화제 상영작들도 가능하면 챙겨본다는 그는 "상업영화와 독립영화를 모두 오가고 싶다"는 바람을 나타냈다. 올 여름에는 현재 촬영 중인 영화 '치외법권'으로 다시 스크린을 찾을 계획이다.

"관객들에게서 '저 배우는 눈이 참 좋다'는 소리를 듣고 싶어요. 그리고 연기를 하면서 스스로 행복해지고 싶고요. 아직은 부족한 점이 많지만 언젠가는 인물을 과장되게 표현하지 않아도 그 마음을 충분히 전달할 수 있는 배우가 되고 싶어요."

/장병호기자 solanin@metroseoul.co.kr

사진/라운드테이블(김민주) 디자인/박은지

star bag

새 앨범 들고 1년만에 컴백

가수 **에릭남**이 다음달 5일 약 1년 만에 새 앨범 '괜찮아 괜찮아'를 발표한다. 앨범 재킷 디자인은 유명 일러스트레이터 황영진 작가의 작품이다. MBC '위대한 탄생'을 통해 가수로 데뷔한 에릭남은 현재 MBC '섹션TV 연예통신' '우리 결혼했어요', 아리랑TV '애프터스쿨 클럽' 등에 출연 중이다.

2인조 D&E 유닛 활동

그룹 슈퍼주니어의 **동해**와 **은혁**이 2인조 유닛 슈퍼주니어 D&E로 컴백한다. 다음달 6일 한국에서 '더 비트 고즈 온(The Beat Goes On)'과 일본에서 4월 1일 '프레젠트(Present)'를 발매한다. 두 사람은 4월 3일 일본 사이타마 슈퍼 아레나에서 열리는 투어를 시작으로 한·일 양국에서 활발하게 활동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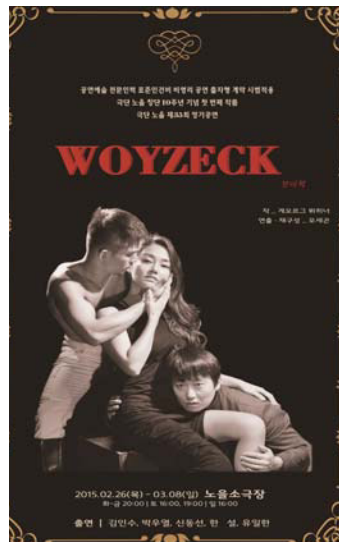
AFA 여우조연상 후보 올라

배우 **한예리**가 영화 '해무'로 아시아 필름 어워드(AFA) 여우조연상 후보에 올랐다. 다음달 27일 홍콩에서 열리는 AFA는 2007년 시작된 영화제로 아시아 전역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영화예술인을 위한 축제다. 한예리는 여리고 순수하면서 동시에 가장 강인한 여인 홍매를 연기했다.

팬들에게 '수제 쿠키' 선물

배우 **장나라**가 팬들에게 직접 만든 쿠키를 선물했다. 장나라는 지난 8일 공식 홈페이지에서 실시간 댓글 이벤트를 진행, 20명을 추첨해 쿠키·책·비누·핸드크림 등을 전달했다. 수제 쿠키는 장나라가 직접 낸 아이디어로 소속사는 "오랫동안 팬에게 어떻게 감사를 전할까 항상 고민했다"며 "앞으로도 특별한 이벤트를 기획할 것"이라고 전했다.

'갑을' 다룬 드라마·연극 풍년

'풍문으로 들었소' '호구의 사랑' '보이첵' 등 소재 활용

갑을 관계를 다룬 드라마와 연극이 눈에 띈다. 블랙코미디, 로맨스로 풀어내거나 논란을 진지하게 해석하며 다양하게 갑과 을을 해석한다.

SBS 월화드라마 '풍문으로 들었소'는 상류층의 속물 의식을 풍자한 블랙코미디다. 한정호(유준상)·최연희(유호정)는 법조계의 고상한 부부다. 이들은 어느 날 19세 아들 한인상(이준)이 데려온 만삭 여자친구 서봄(고아성)을 보고 본색을 드러낸다. 서봄의 출산을 돕는 건 명분이며 내뱉는 대사는 위선적이다. 그들에게 서봄은 감히 넘볼 수 없는 아들을 범한 황당한 여자일 뿐이다. 특히 가정 분만 중 산모의 소리가 새나가지 않게 클래식 음악을 크게 틀어 놓는 장면에선 상류층의 허세를 느낄 수 있다. '풍문으로 들었소'가 갑을 관계를 유쾌하게 꼬집고 블랙코미디의 진수를 보여줄 지 주목된다.

tvN 월화드라마 '호구의 사랑'은 갑을 관계를 로맨스에 빗댔다. 한없이 착한 모태솔로 강호구(최우식)는 첫 사랑이자 국민 수영 여신 도도희(유이)와 재회한 후 복잡한 애정 관계, 위험한 우정에 휘말리게 된다. 강호구는 도도희가 실수로 낳은 아이를 직접 받으며 아빠 노릇을 한다. 바보같기도하다. 그러나 드라마는 '을' 강호구를 통해 진실된 사랑, 진정성 있는 소통을 이야기한다. 표민수 감독은 "빠르게 사는 시대에 느리게 사는 면을 보여주고 싶었다"며 "덜 치열하게 살면서 나에겐 지질한 모습이 없는지를 돌아봤으면 한다"고 기획 의도를 전했다.

연극 '보이첵'은 갑을 논란과 정면으로 마주한다. 아내를 살해한 후 사형 당하는 보이첵을 통해 강자도 더 강한 힘에 강박 받는 약한 존재일 뿐이라는 메시지를 던진다. 보이첵은 '갑'의 꼭두각시다. 가난한 그는 의사의 생체 실험에 몸을 던진다. 상관의 폭언에도 면도를 해줘야 하고 군악대장에게 아내를 빼앗기는 수모를 겪는다. 몸과 마음이 피폐해진 그는 아내를 죽인다. 작품은 단순한 치정 살인 사건을 넘어 자신보다 약한 자를 공격하는 사회의 원초적 부조리와 폭력성, 인간의 허약함을 이야기한다. 극단 노을의 10주년을 기념하는 작품으로 오는 26일부터 내달 8일까지 대학로 노을소극장에서 공연된다.

/전효진기자 jeonhj89@metroseoul.co.kr

'현대적 이브'로 파격변신한 가인

다음달 새 앨범 '하와' 발표

가수 가인(사진)이 1년 만에 가요계에 복귀한다.

가인은 다음달 중순 '하와(Hawwah)'를 타이틀로 한 새 앨범을 발표한다고 소속사 에이팝(APOP)엔터테인먼트가 26일 밝혔다.

생명이란 의미를 가진 '하와(이브)'는 사탄(뱀)의 유혹으로 신이 금지한 선악과를 깨물어 인류 최초의 죄를 범하는 인물이다. 가인은 이번 앨범에서 '하와'를 현대적으로 해석해 파격적인 음악과 콘셉트로 풀어낼 예정이다.

특히 가인의 이번 앨범은 가수 윤종신이 이끄는 미스틱 엔터테인먼트와 에이팝 엔터테인먼트가 합병한 이후 처음 발매되는 것으로 두 레이블의 만남이 어떤 음악을 만들어낼지 음악 팬들의 기대가 높다. /김지민기자 langkim@

김고은 순수 벗고 시크하게

패션 화보로 이색 변신

배우 김고은이 패션 화보를 통해 시크한 매력을 발산했다.

김고은은 최근 패션 매거진 GQ 코리아와 진행한 패션 화보 촬영에서 그동안 보여준 순수한이미지를 벗고 이전과 다른 묘한 섹시함을 선보였다. 모델 못지않은 다채로운 포즈와 함께 원피스부터 보이시한 재킷까지 다양한 의상을 완벽하게 소화했다.

김고은은 영화 '차이나타운'으로 스크린 컴백을 앞두고 있다. '차이나타운'은 오직 쓸모 있는 자만이 살아남는 차이나타운에서 그들만의 방식으로 살아온 두 여자의 생존법칙을 그린 영화다.

'차이나타운'은 김고은과 함께 충무로 대표 여배우 김혜수의 캐스팅으로 화제를 모았다. 영화는 오는 4월 개봉 예정이다. /장병호기자 solanin@

귀국 이병헌 "아내에게 평생 빚"

온라인 핫 이슈

동영상 협박 사건으로 스캔들에 휘말린 배우 이병헌(**사진 오른쪽**)이 사건 발생 6개월 만에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이병헌은 아내 이민정(**왼쪽**)과 함께 26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이병헌은 공항에 모인 취재진 앞에서 "더 일찍 사과 말씀을 드렸어야 하는데 시간이 흐른 점에 대해 먼저 사죄 말씀드린다"며 "이번 일은 저로 인해 비롯된 것이니 이에 대한 질타는 나 혼자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족에게 평생을 두고 갚아야할 빚이 생겼고 책망도 많이 받았다"며 "이 자리를 빌어 저를 지켜봐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사죄의 뜻을 전하고 싶다.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이병헌은 지난해 9월 두 여성으로부터 50억원을 주지 않으면 음담패설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겠다는 협박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에 휩싸였다. 법원은 이들 여성에 대해 지난달 15일 실형을 선고했지만 이병헌은 이 과정에서 갖은 추문과 루머에 휩싸이며 도덕성에 치명상을 입었다.

한편 이민정은 이날 이병헌이 취재진 앞에서 말하는 동안 매니저와 함께 차량으로 이동했다. 현재 이민정은 임신 8개월로 오는 4월 출산 예정이다. /장병호기자

예능 외출 하석진 "녹화하며 당 떨어져"

tvN '뇌섹시대'서 지적 대결

배우 하석진(사진)이 예능 프로그램을 녹화하다 당이 떨어졌다.

하석진은 tvN '뇌섹시대-문제적 남자'를 통해 예능프로그램에 처음 고정 출연한다. 그는 전현무·김지석·이장원·타일러라쉬·랩몬스터와 함께 지적 매력을 넘어 남과 다른 섹시한 사고를 뽐내며 고난도 문제를 두고 열띤 토크를 한다.

26일 상암동 DMS에서 열린 제작발표회에서 하석진은 "별 생각 없이 왔는데 촬영할 때 단 게 엄청 땡긴다"며 "당 떨어지는 프로그램이다. 움직이지 않는데 배가 고프다"고 '문제적 남자'를 소개해 웃음을 자아냈다.

이어 "질문을 받는 순간 경쟁심이 생기지 않는다. 관망하면서 죽지 않으려고만 노력한다"며 "다른 출연진의 스펙을 봤을 때 내가 친한 사람들에게 했던 잘난 척이 먹히지 않을 것 같았다. 내면은 자신 있지만 겉으로 표현하지 않을 뿐"이라고 관전 포인트를 설명했다.

'문제적 남자'는 26일부터 매주 목요일 오후 11시 방송된다. /전효진기자

AVENUE B ET VITO FILMS PRESENTENT

지금, 당신 곁엔 누가 있나요?

〈담백하고 흡입력 있는 영화〉
Naver ID : jedidiah69

〈곁에 있는 이의 소중함은 느끼게 하는 영화〉
Naver ID : fscouple

Paris Follies

흔들리는 · 당신을 · 위한 · 인생 · 처방전

파리 폴리

〈다른 나라에서〉〈아무르〉 이자벨 위페르 주연 | 〈코파카바나〉 마크 피투시 감독

2월 26일 대개봉!

'킬패스' 93%… 손흥민 이번엔 특급 도우미

UEFA 챔스리그 AT마드리드전 풀타임… 레버쿠젠 승리 견인

'손세이셔널' 손흥민(23·레버쿠젠)이 풀타임 활약하며 팀의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8강 진출 전망을 밝혔다.

손흥민은 26일 새벽(한국시간) 독일 레버쿠젠의 바이아레나에서 열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스페인)와의 2014-2015 UEFA 챔피언스리그 16강 1차전에서 2선 공격수로 선발 출전해 풀타임 활약했다.

이날 손흥민은 직접 골을 넣는 해결사 역할보다는 간결한 패스로 주변 동료에게 볼을 연결하는 도우미 역할을 했다.

축구전문 매체 후스코어드닷컴은 이날 경기를 분석하며 손흥민이 45차례 패스를 시도해 42개를 성공시키며 양팀 통틀어 가장 높은 93.3%의 패스 성공률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골을 기록하지는 못했지만 팀 승리의 핵심 역할을 했다.

또 7738m를 달려 팀 내 활동량에선 5위를 차지했고, 후반 막판 선수들이 신경전을 벌일 때에도 동료를 제지하며 침착하게 대처했다.

레버쿠젠은 후반 12분 카림 벨라비가 페널티박스까지 침투, 짧게 내준 힐 패스를 찰하놀루가 받아 오른발로 강하게 차 넣어 골망을 흔들었다.

'손세이셔널' 손흥민(레버쿠젠)이 26일 새벽(한국시간) 독일 레버쿠젠의 바이아레나에서 열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의 2014-2015 UEFA 챔피언스리그 16강 1차전에 선발 출전해 볼을 드리블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1-0로 제압한 레버쿠젠은 다음달 18일 스페인 마드리드의 비센테 칼데론 경기장에서 16강 2차전을 벌인다.

경기 후 골닷컴은 손흥민에게 "놀랍도록 열심히 뛰었다. 상대가 공을 잡고 있을 틈을 허용하지 않았다"고 평하며 별 5개 만점에 3개 반을 줬다. 별 4개를 받은 골키퍼 베른트 레노, 도움을 기록한 카림 벨라라비에 이어 다른 동료 3명과 함께 팀 내 공동 3위에 올랐다. 후스코어드닷컴은 10점 만점에 7.03점을 줬다.

한편 AS모나코(프랑스)는 전반 38분 제프리 콘도비아의 선제골, 후반 8분 디미타르 베르바토프, 종료 직전 야닉 페레이라 카라스코의 연속 골이 터지며 아스널(잉글랜드)을 3-1로 완파했다. 아스널은 후반 46분 알렉스 옥슬레이드-체임벌린의 골로 영패를 면했다.

/김민준기자 mjkim@metroseoul.co.kr

강정호 라이브배팅 장쾌한 홈런포

빠른 볼엔 아직 적응 못해

강정호(28·피츠버그 파이리츠·사진)가 라이브 배팅에서 큼지막한 홈런을 날렸다.

강정호는 25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 주 브래든턴의 파이리트 시티에서 열린 스프링캠프 이틀째 전체 훈련에서 이틀 연속 투수가 던지는 볼을 때리는 라이브 배팅에 나섰다. 이후 곧바로 변화구를 퍼올려 구장 왼쪽 그물망을 훌쩍 넘겨 바로 뒤 실내 타격장 지붕 위에 떨어지는 포물선을 날렸다.

그러나 빠른 볼에는 아직 타이밍을 잡지 못한 듯 호쾌한 직선타성 타구보다 땅볼성 타구를 많이 쳤다. 배팅 머신에서 나오는 볼에도 타이밍을 놓치는 모습을 보였다.

라이브 배팅에 앞서 강정호는 간판선수인 앤드루 매커천과 캐치볼로 몸을 풀었고, 배팅볼 타격, 주루, 수비 연습을 하며 하루 일과를 마쳤다.

훈련을 마친 그는 "투수가 뿌리는 공을 더 봐가며 페이스를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

피츠버그는 다음달 2일 주전들로 꾸린 '블랙'과 후보선수 위주의 '골드'팀으로 나눠 청백전을 치른다. 이어 3일부터 본격적인 시범경기를 펼친다.

/김민준기자

"연습경기 8전 전패 KIA 의미 없다"

느긋한 김기태 감독 "바닥부터 다시 시작"

지난해 KIA 타이거스의 성적은 '꼴찌' 바로 위인 8위였다.

새로 영입한 김기태(사진) 감독을 중심으로 올해 분위기 반전을 노리고 있지만, 전력 누수가 심해 하위권에서 맴돌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키스톤 콤비인 김선빈·안치홍이 모두 입대했고, 톱타자 이대형이 빠져나갔다. 이를 입증이라도 하듯 KIA는 올해 스프링캠프 들어 치른 연습경기에서 8전 전패를 기록했다.

이와 관련, 김 감독은 "연습경기에서 패한 것은 아무 의미 없다"며 "시범경기에서도 팀을 둘로 나눠 한 팀이 경기를 벌이면 나머지 한 팀은 자체 연습경기를 치르겠다"는 뜻을 밝혔다. 시범경기에서도 승부에 연연하지 않고 선수들의 특성을 파악하면서 훈련에 집중하겠다는 구상이다.

연습경기에서 연전연패 중임에도 주축 선수들의 출전을 줄이고 뚝심있게 계속 백업 선수들을 투입하는 것도 이 연장선상에 있다.

김 감독은 "우리는 계속 경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고, 밑바닥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이런 과정을 통해 가능성을 발견한 유망주들에게 기회를 주고, 기존 베테랑들과 자연스럽게 한 팀으로 묶어내는 역할이 나의 몫"이라고 말했다. /김민준기자

류현진 등 통증 호소 하루 휴식

"가벼운 결림 괜찮을 것"

류현진(28·LA 다저스·사진)이 가벼운 등 통증으로 훈련을 하루 걸렀다.

MLB닷컴은 26일(한국시간) "류현진이 등에 통증을 느껴 하루 쉬었다"고 전했다. 류현진은 이날 다저스 스프링캠프가 진행 중인 미국 애리조나주 글렌데일 캐멀백 랜치 스타디움에 나왔지만, 치료만 받고 숙소로 이동했다. 이어 취재진에게 "내일(27일) 훈련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류현진은 전날 스프링캠프 시작 후 두 번째 불펜피칭을 했다. 불펜피칭 직후 류현진은 등쪽에 불편함을 느꼈고 하루가 지나도 통증이 사라지지 않자, 구단 의무진과 상의해 휴식을 취하기로 했다.

돈 매팅리 다저스 감독은 류현진에게 휴식을 줬다는 소식을 전하며, "등 가운데에 통증이 있다. 하지만 회복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부상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MLB닷컴도 "이번 등 통증은 큰 부상이 아닌, 불편함을 느끼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민준기자

빚있는 세입자에 빚내서 집 사라고?

기자 수첩

김 학 철 <경제부 기자>

"집 욕심은 없었는데 전셋값 올려달라는 집주인을 두 번이나 만나다보니 집을 진짜 사야하나 생각이 든다. 대출금리가 싸다지만 갚아야 할 학자금도 남았고 이미 대출받은 것도 있고, 선뜻 돈을 빌리는 게 쉽지 않다."

전셋값 인상 요구에 두번째 이사를 준비 중인 허모씨(36·서울)는 최근 전월세 안정화 대책이니 부동산 시장 활성화니 하는 말에 고개를 저었다. 그나마 저금리 기조에 대출이라도 염두에 둘 수 있는 것에 만족한다고 했다.

올해는 역대 최대치의 아파트 분양 물량이 쏟아져 나올 전망이다. 이에 분양시장에 활기가 예상되며 매매거래량도 지난해보다 상승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각종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과 저금리 기조가 맞물리며 지금이 내 집 마련의 적기라고는 하지만 허씨처럼 전세입자가 매매 시장으로 당장 나서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일단 저금리 기조가 언제까지 유지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주택가격이 오를 것이란 확신이 없다. 전세 수요와 월세 수요는 매매 수요와 엄연히 다르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는 문제다. 정부에서는 저금리의 주택 대출 상품을 잇달아 선보였지만 이미 빚을 안고 시작한 대부분의 세입자들은 망설일 수 밖에 없다.

전월세 안정화를 위해 저금리 전세자금 대출을 늘리며 임대주택 사업을 대대적으로 벌이고 있지만 실제 수요자들은 달갑지 않다는 반응이다. 특히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뉴스테이)도 주거 안정에 얼마나 기여할지 낙관할 수 없다. 정부의 드라이브에도 건설사들은 아직도 참여 여부를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중산층 전세 수요자가 반전세에 가까운 월세로 이동할지도 의문이다.

지금도 전셋값은 천정부지 오르고 있다. 전세가율이 80%에 달하는 곳도 많다. 서울은 재건축·재개발 이주가 본격화하는 올 해부터 향후 3년은 전세난이 악화될 것이란 전망이다.

빚을 내 집을 사라는 정부와 더 이상 빚지기 싫다는 세입자들의 줄다리기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매매시장을 달구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전세는 전세, 월세는 월세에 맞게 시장 맞춤형 방안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김상회의 사주속으로

김상회 역학연구원
02) 533-8877
www.saju4000.com

백수인데 내년 공무원 시험 준비 고민 직장 먼저 찾은 뒤 도전하는게 나을 듯

따뜻한 들날 87년 12월 26일 양력 오후 15시 10분

Q 진로 운이 궁금하여 상담 드립니다. 짧은 시간 계약직으로 잠깐 일하고 퇴사 하였습니다.87년 양력 12월 26일 오후 15시 10분생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공무원 시험 준비를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그냥 하지 말고 직장을 다니는 게 나은지 아니면 일 다니면서 공부를 해야 하는지 고민입니다. 내년에 저에게 시험 운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2021년이 지나면서 재물의 천을귀인(天乙貴人:귀인의 도움)을 두게 되어 생활의 여유가 생기게 됩니다만 아직 시간이 멀게 느껴질 것입니다. 생일에 장생(長生)이라 학문을 통하여 진로를 정하면 반드시 길 선한 결과를 얻게 됩니다. 2015년은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다가 자금난에 부딪히게 되니 일단은 생활에 방편이 될 수 있는 직업을 찾아 저금을 하고 2016년에 공부의 기운이 오게 되니 공무원 시험의 합격을 목표로 월별 일별로 계획과 시간표를 정하십시오. 시험 운은 있으나 돈 버는데 할애하여 시간을 뺏기게 되니 관리를 잘 하도록 하세요. 운만 있으면 다 합격 될 줄 알지만 실상은 실력과 노력과 운의 3박자가 되어야 합격을 누릴 수 있으니 2016년부터 시험에 대비하여 24시간을 잘 쪼개 쓰도록 하세요. 오늘 이후부터는 공부 외에 운세 보는 곳에 시험이 언제 되는지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앞으로 목표를 향하여 가는 데에만 신경 쓰십시오. 몇 가지 도움이 되는 얘기를 적어보겠으니 귀하와 독자 분들께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규칙적으로 제시간에 취침하고 하루 인시(寅時;아침5시)이상은 자지 말고 공부하십시오 시험과목 외에 아무리 시간이 모자라도 신문에 난 사설은 꼭 읽어서 시사에 밝도록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시험공부를 너무 조급하게 하지 말고 찬찬히 이해하고 넘어가도록 하면서 전체 과목의 흐름을 익혀 두면서 진도를 맞춰야 합니다. 하루 30분의 걷기운동을 습관화하고 물을 식사전후 30분으로 하여 1.8리터 정도를 씹어서 자주 마시는 습관을 가지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인생은 오랜 동안 꿈을 가꾸면 그 꿈대로 된다는 말을 잊지 마시고 긍정적으로 될 수 있다는 사고를 갖도록 하세요.

자신의 사주를 알고 싶은 독자들은 메트로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연재 '사주 속으로' 를 클릭해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 그리고 상담을 원하는 내용을 적어 올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사주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가 듬뿍! 아이큐가 쑥쑥!

SUDOKU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 세로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4				9	7
			9			2		5
			7		3			
		3				6	5	
7								8
	6	4				3		
			6		5			
8		6			2			
2	5				7			

		7	5			3		8
5		2		4				
	1		6					
	3	5		9				
	7						8	
				3		5	6	
					9		3	
				5		8		6
3		9			1	2		

스도쿠 정답

6	3	5	4	2	1	8	9	7
4	1	7	9	6	8	2	3	5
9	2	8	7	5	3	1	6	4
1	8	3	2	7	4	6	5	9
7	9	2	5	3	6	4	1	8
5	6	4	8	1	9	3	7	2
3	4	9	6	8	5	7	2	1
8	7	6	1	9	2	5	4	3
2	5	1	3	4	7	9	8	6

6	9	7	5	1	2	3	4	8
5	8	2	9	4	3	6	1	7
4	1	3	6	7	8	9	2	5
1	3	5	8	9	6	4	7	2
9	7	6	4	2	5	1	8	3
2	4	8	1	3	7	5	6	9
8	5	4	2	6	9	7	3	1
7	2	1	3	5	4	8	9	6
3	6	9	7	8	1	2	5	4

문제 제공= 보누스
'멘사 스도쿠 프리미어' (피터 고든·프랭크 롱고 지음)

신점[神占] 운세 2월 27일 (음 1월 9일) 사주스타(www.sajustar.com) 060-300-8400

48년생 본인의 신념을 믿고 행동하세요. **60년생** 성실하게 추진하던 일에 대가를 얻을것입니다. **72년생** 생각지도 않았던 이득이 생길 수 있습니다. **84년생** 이성운이 길하니 먼저 다가가 보세요.

49년생 지금은 기다림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61년생** 일은 어렵고 마음은 답답합니다. **73년생** 생각지도 않은 사람에게서 작은 도움을 받게 됩니다. **85년생** 상당히 좋은 기회가 찾아옵니다.

50년생 욕심보다는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62년생** 눈앞의 이득보다는 미래를 선택하는게 좋습니다. **74년생** 손에 잡힐 듯 하면서도 잘 잡히지 않습니다. **86년생** 일이 많고 바쁜 하루입니다.

51년생 재물을 얻지만 손해도 있습니다. **63년생** 길할 수록 겸손하게 대처하는게 필요합니다. **75년생** 거래나 외출은 뒤로 미루는게 좋습니다. **87년생** 혼자 판단하지 말고 주위의 조언을 들으세요.

52년생 노력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아 답답합니다. **64년생** 싸우기보다는 양보하는게 더 이득입니다. **76년생** 마음이 지치니 휴식이 필요합니다. **88년생** 다른 사람 일에 참견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53년생 건강관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65년생**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는게 필요합니다. **77년생** 일이 뜻대로 안풀리니 마음이 답답합니다. **89년생** 무난하고 평탄한 하루입니다.

54년생 여행하기에 좋은 하루입니다. **66년생**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면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78년생** 자신감 있게 행동하고 내 것을 지키세요. **90년생** 능력 이상의 일은 자제하는 게 좋습니다.

55년생 지금은 힘들지만 곧 나아질것입니다. **67년생** 신중함보다는 추진력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79년생** 주위에 덕을 베풀면 더 큰 이득을 얻습니다. **91년생** 운이 길하고 마음도 편한 하루입니다.

56년생 자신감 있게 추진하면 결과가 좋습니다. **68년생** 고생 끝에 원하던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80년생** 실천하기 전에 한번 더 생각하세요. **92년생** 금전운이 좋지 않으니 자제하는게 필요합니다.

57년생 외출하면 좋은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69년생** 다른 사람보다는 본인 일에만 집중하세요. **81년생** 성급한 추진보다는 기다림이 더 필요합니다. **93년생** 지금은 인내심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58년생 시비가 생길 수 있으니 언행에 주의하세요. **70년생** 다른 사람의 조언을 듣는게 좋습니다. **82년생** 윗 분의 의견을 들으면 길합니다. **94년생** 느긋하게 기다리면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59년생 다투기 보다는 양보하는게 좋습니다. **71년생** 구설수가 있으니 언행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83년생** 운이 좋으니 원하던 일을 추진하세요. **95년생** 동료와 협력도 잘되고 일도 잘 풀립니다.

백제 무덤의 비밀을 밝혀라! 전남 담양군과 대한문화재연구원이 26일 담양 대전면 중옥리 서옥고분군 중 백제 고분 가운데 가장 잘 보존된 4호분과 12호분에 대한 학술 발굴조사를 실시했다. /연합뉴스

“건대 부동산학 발전 큰 획”

‘해봉 부동산학관’ 준공식 열려…지상 7층 규모

건국대학교(총장 송희영)가 원로 기업가의 기부를 통해 단일 학과(부동산학) 건물로 신축된 ‘해봉(海峰) 부동산학관’을 완공하고 지난 25일 오후 서울 광진구 능동로 서울캠퍼스 교정에서 준공식을 열었다.

건물은 원로 기업가 해봉(海峰) 손정환 선생(93)이 기부한 부동산학과 발전기금 30억원과 동문·교수들의 모금 등으로 모아진 총 101억원으로 지어졌다. 지하 2층·지상7층 연건평 7589㎡(약 2300평) 규모로 건립됐다. 또 기부자의 호를 따 건물 이름이 명명됐다. 새 학기부터 학부과정 정치대학 부동산학과 소속 교수진과 학생 400여 명 등이 이를 사용하게 된다.

이 자리에서 송희영 건국대학교 총장은 “발전기금 기부자의 뜻과 정성을 한 자리에 모으고 이를 기념하는 기념관 형태의 해봉 부동산학관을 완공하게 된 것은 건국대학교 발전의 또 하나의 획을 긋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내 최고를 넘어 세계를 향해 도약하는 건국대 부동산학과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해봉 선생의 가족을 대표해 준공식에 참여한 손인국 이구산업 회장은 “학문 발전과 인재 양성이 기업과 사회, 국가 발전의 원천이라는 믿음으로 평생을 살아온 해봉 선생의 뜻이 건국대학교에 전달돼 해봉 부동산학관을 준공하게 된 것을 축하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손 회장은 부동산학 발전기금으로 1000만원을 추가 기부하기도 했다.

/황재용기자 hsoul38@metroseoul.co.kr

정부가 임금체불 우선지급

고용부, 7월부터 최대 300만원까지

오는 7월부터 퇴직근로자가 사업주를 상대로 한 체불임금 소송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확정 판결을 받으면 최대 300만원까지 정부로부터 우선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공포된 임금채권보장법의 시행을 위해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하고 7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액체당금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사업이 가동된 기업에서 퇴직해야 하고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체불임금에 관한 소송을 제기한 후 확정 판결을 받아야 한다.

또 확정 판결을 받은 근로자는 판결일부터 1년 이내에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나 지사에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공단은 근로자의 청구서 등을 검토해 14일 이내에 최대 300만원까지 근로자의 계좌로 체당금을 지급하게 된다.

고용부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연간 체불근로자 5만 2000여 명이 체불임금 1240억원을 체당금으로 지급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아울러 고용부는 체당금 지원 여부를 결정할 때 사업규모를 판단하는 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법도 합리적으로 변경할 방침이다. /황재용기자

“태극기 함께 달아요” 3·1절을 사흘 앞둔 26일 대전 서구 대전보훈청사 앞 ‘태극기 동산’에서 중학생들이 나무에 매달린 태극기를 손보고 있다. /연합뉴스

9호선 ‘지옥철’ 구간에 급행버스 운행

출근시간 극심한 혼잡을 겪고 있는 9호선 급행구간에 급행버스가 운행된다.

서울시는 26~27일 시범운영을 거쳐 다음달 2일부터 오전 6시부터 9시까지 출근시간에 급행버스 8663번 운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9호선은 다음달 2단계 구간(신논현역~종합운동장역) 개통을 앞두고 지난달 31일부터 시운전에 들어가면서 혼잡이 극심해졌다.

버스는 가양역에서 여의도역 방면으로 편도만 운행하며 가양역, 염창역, 당산역, 국회의사당역, 여의도역 5개 정류소를 지난다. 3시간 동안 총 15대가 운행돼 이들 정류소를 3~4분 간격으로 지나게 된다. /조현정기자

개나리·진달래 평년보다 빨리 핀다

개나리와 진달래 등 올해 봄꽃은 평년보다 이르지만 작년보다는 늦게 필 것으로 전망된다.

기상청은 올해 봄꽃 개화시기가 전국에서 대체로 평년보다 1~3일 빠르고 동해안과 남해안 일부 지역은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26일 밝혔다.

또 올해 개화시기는 봄꽃이 매우 일렀던 작년보다는 3일 가량 늦을 것으로 보인다.

인사

■ 환경부
◇ 과장급 전보 ▲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장 최기형 ▲ 낙동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장 강석우
■ 관세청
◇과장급 전보 ▲창원세관장 황충조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 중앙회 관리본부장 김현경 ▲ 중앙회 모금사업본부장 강학봉 ▲ 중앙회 기획조정실장 이성도 ▲ 충남지회 사무처장 정진옥 ▲ 울산지회 사무처장 방성수 ▲ 전북지회 사무처장 선용상 ▲ 서울지회 사무처장 최은숙 ▲ 대구지회 사무처장 박용훈 ▲ 세종지회 사무처장 박은희
■ 연세대
▲ 상담센터소장 방사무엘연상 ▲ 글로벌교육원장 정승화 ▲ 체육지원센터소장 김윤명 ▲ 대학교회 담임목사 조재국 ▲ 연세애널스주간 애들러안소니 ▲ 대학출판문화원장 문일 ▲ 천문대장 박상영 ▲ 창업지원단장 손홍규 ▲ 사회복지센터소장 최재성 ▲ 상남경영원장 김영찬
■ 서울여대
▲ 학생처장 겸 취업경력개발원장 겸 장애학생지원센터장 겸 사회봉사센터장 겸 바롬인성교육연구소장 겸 창의성센터장 이윤선 ▲ 입학홍보처장 겸 입학사정단장 박진 ▲ 교목실장 장경철 ▲ 교직지원실장 이재성 ▲ 바롬인성교육원장 나현신 ▲ 기숙사책임교수 이정미 ▲ 학생상담센터장 송미경 ▲ 여성연구소장 김기숙 ▲ 영어영문학과장 조성원 ▲ 기독교학과장 정연득 ▲ 아동학과장 김진영 ▲ 행정학과장 박경원 ▲ 원예생명조경학과장 주신하 ▲ 체육학과장 박주한 ▲ 산업디자인학과장 이주형 ▲ 교양영어책임교수 김선희 ▲ 박물관학전공주임 정연식 ▲ 특수치료전문대학원 심리치료학과장 겸 표현예술치료학과장 송현주 ▲ 교육대학원 국어교육전공주임 이정택 ▲ 교수사정관 최균호
■ 아주대의료원
▲ 외과부장 서광욱 ▲ 내과부장 김흥수 ▲ 건강증진센터 소장 김진홍 ▲ 권역응급의료센터 소장 민영기 ▲ 감염관리실장 최영화 ▲ 국제진료센터 소장 신규태 ▲ 국제진료센터 부소장 박주헌
■ 축산물품질평가원
<2급 승진> ▲제주지원장 안광영 <3급 승진> ▲ 원경환 평가사업본부 유통정보팀장 ▲ 이정우 강원지원 평가팀장 ▲ 조남욱 강원지원 이력팀장 ▲ 허성민 전북지원 이력팀장 ▲ 송종호 대구경북지원 이력팀장 ▲ 이대용 부산경남지원 평가팀장 ▲ 하광현 부산경남지원 이력팀장 ▲ 권희구 제주지원 평가팀장 <3급 전보> ▲ 김학재 기획경영본부 인재개발팀장 ▲ 승종원 평가사업본부 평가관리팀장 ▲ 정연복 이력사업본부 이력지원팀장 ▲ 이호철 R&DB 본부 정보사업팀장 ▲ 이성호 경기지원 이력팀장 ▲ 유임종 대전충남지원장 직무대리(평가팀장 겸임) ▲ 강인수 충북지원 평가팀장 ▲ 서위석 광주전남지원 이력팀장 ▲ 백정경 전북지원 평가팀장 ▲ 이동원 대구경북지원 평가팀장
■ 한서대
▲ 국제예술디자인대학원장 김윤 ▲ 대학원교학처장 안외순 ▲ 학생생활상담소장 백경화 ▲ 항공교통관제교육원장 김도현 ▲ 연암도서관 대통령자료실장 조광국 ▲ 인문사회학부장 한정란 ▲ 이공학부장 손병현 ▲ 예술디자인학부장 지문환 ▲ 보건학부장 함주현 ▲ 스포츠경호학부장 최종인 ▲ 재무부장 고정원 ▲ 취업지원과장 이용건 ▲ 총무과장 이승휘 ▲ 창업지원계장 이용관
■ KB투자증권
◇ 보임 ▲ IB총괄 김성현(전무) ◇ 신임 본부장 발령 ▲ 기업금융본부장 박성원(상무)

부고

▲ 문두원 씨 별세, 김인철(서울시 대변인)씨 빙부상 = 25일 오후 4시,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5호실(27일 이후 12호실), 발인 28일 오전 8시. 02-2258-5940.
▲ 김재춘씨 별세, 정해권(성남서고교 교사)·해천(자영업)·해근(한화투자증권 부사장)·해상(자영업)·해원(자영업)씨 모친상 = 25일 오후 7시 30분,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연세장례식장 특 2호실, 발인 28일 오전 8시. 02-2227-7580
▲ 정운용씨 별세, 정만택(충북 음성군 서울사무소장)씨 부친상 = 25일 오후 2시 30분, 청주의료원 장례식장 6호실, 발인 27일 오전 9시, 043-279-0156
▲ 안영매씨 별세, 김시진(전 프로야구 롯데자이언츠 감독)씨 모친상 = 26일 오전, 인천사랑병원 장례식장 5호실, 발인 28일 오전 7시. 032-441-0404
▲ 김옥순씨 별세, 우종익(아영에프비씨 대표이사)씨 장모상 = 26일 오전, 서초구 반포동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31호실, 발인 28일 오전 7시. 02-2258-5940
▲ 최영자씨 별세, 이광우(사업)씨 모친상, 이근경(셀트리온 상임고문) 오규환(한국PMG제약 상무) 손장원(뉴젠텍 대표이사)씨 장모상 = 26일, 인천 연수성당 장례식장, 발인 28일 오전 8시30분 032-822-2271.

간통죄 위헌 헌재 재판관별 판단

위헌: 강일원, 김이수, 김창종, 박한철(소장), 서기석, 이진성, 조용호
폐지 국가가 법률로 간통을 처벌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

합헌: 이정미, 안창호
유지 선량한 성도덕의 수호, 혼인·가족제도 보장 효과

자료/헌법재판소 ※재판관 가나다순 /연합뉴스

7:2…간통죄 62년만에 폐지

<위헌 : 합헌>

헌재 "헌법에 위배"…사법처리 5466명 구제길

국가가 법률로 간통을 처벌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26일 헌재 전원재판부는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형법 241조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2건의 위헌법률심판 사건과 15건의 헌법소원심판 사건을 병합해 이같은 결정을 선고했다.

헌재 결정으로 형법 241조는 즉시 효력을 잃었다. 헌재법에 따라 종전 합헌 결정이 선고된 다음날인 2008년 10월 31일 이후 간통 혐의로 기소되거나 형을 확정받은 5466명이 구제받을 수 있게 됐다.

형법 241조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간통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그와 간통을 한 제3자도 같은 처벌을 받는다.

우리 사회는 1953년 제정된 이 조항을 둘러싸고 존치론과 폐지론으로 치열한 논쟁을 벌여왔다. 일부일처주의 유지, 가족제도 보장, 여성보호 등은 간통죄를 존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근거들이다.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 자유를 위해 간통죄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 팽팽히 맞서왔다.

헌재는 1990~2008년 4차례 헌법재판에서 간통죄를 모두 합헌으로 판단했다. 질서 유지와 공공 복리를 위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다소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 그동안 견해였다.

이에 따라 간통죄가 62년 만에 폐지되면서 사회적 파장이 예상된다.

우선 이혼 소송의 원칙이 유책주의에서 파탄주의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데다, 간통에 대한 민사적 책임을 강화해 유책 배우자가 지급해야 할 위자료나 손해배상액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

특히 간통죄 폐지가 불륜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라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현정기자 jhj@metroseoul.co.kr

3월 11일은 전국 동시 조합장선거일 다음 달 11일 실시되는 '제1회 전국 동시 조합장선거' 선거운동 첫날인 26일 경기도 시흥시 오이도 빨강등대 앞에서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정책선거를 다짐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유아 폭행' 송도 보육교사 혐의 부인

CCTV 폭행장면만 인정

식사 도중 김치를 남겼다는 이유로 네 살배기를 폭행해 아동학대를 수면 위로 끌어올린 인천 송도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첫 재판에서 상당수 혐의를 부인했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권순엽 판사 심리로 26일 열린 첫 공판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폭행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A(33)씨 측 변호인은 "일부 혐의를 부인한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토한 음식물을 집어 먹으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 또 당시 아동을 때린 범죄사실은 인정하지만 이런 점을 양형에 참작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당시 폭행장면을 주변에 있던 다른 원생 13명이 보도록 해 정서적 학대를 했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서는 "전원이 목격한 것은 아니며 보라고 지시한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율동을 가르치는 과정에서 한 원생을 발로 위협하고 다른 원생 2명을 바닥에 주저앉힌 뒤 다른 곳을 보게 해 정서적 학대를 한 점에 대해서도 행위 자체는 인정했으나 고의성이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다만 원생을 때려 쓰러진 CCTV 장면의 학대 행위만 인정했다.

이와 함께 A씨의 학대를 막지 못한 혐의(아동복지법상 관리감독 소홀)로 불구속 기소된 해당 어린이집 원장 B(33)씨에 대한 재판도 이날 진행됐다. B씨 측 변호인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한편 A씨는 지난달 8일 낮 12시 50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에 있는 어린이집에서 원생 C(4)양이 급식을 남기자 김치를 억지로 먹이고 뺨을 때려 넘어뜨린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9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황재용기자 hsoul38@

대법 "현대차 사내 하청은 불법파견"

대법원이 현대자동차의 사내 하청을 불법파견으로 재확인하면서 진정한 도급계약과 근로자 파견계약(위장 도급계약)을 구분하는 기준을 제시했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김모씨 등 7명이 "근로자 지위를 확인해달라"며 현대차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상고심에서 4명에 대해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현대차 아산공장에서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김씨 등은 협력업체에서 해고를 당하자 현대차를 상대로 2005년 소송을 냈다. 현대차와 묵시적인 근로관계가 성립했다는 주장이다.

특히 2년을 초과 근무한 4명은 현대차와 협력업체가 진정한 도급계약이 아닌 근로자 파견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다. 노동법상 사용사업주는 2년을 초과 근무한 파견근로자를 고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1심은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에게 구체적 지휘·명령을 한 현대차는 협력업체와 근로자 파견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며 "고용부 장관 허가를 받지 않는 등 불법파견을 했다"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후 2심은 1심 판단을 유지하되 더 나아가 진정한 도급계약과 근로자 파견계약을 구분하는 기준을 내놨다. 2심은 "현대차 소속 정규직 근로자와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의 업무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등 계약의 내용과 업무수행 과정을 봤을 때 근로자 파견계약에 더 가깝다"고 설명했다. /황재용기자

의무경찰 키·몸무게 제한 없앤다

32년만에…시력 기준도 교정시력 포함 0.8 이상

의무경찰 입대시 키와 몸무게 등 신체 제한 기준이 폐지된다.

26일 경찰청은 의무경찰 선발시험 신체와 체격 기준표에서 신장, 체중, 흉위 기준을 없애는 내용의 '전투경찰대 설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최근 경찰위원회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키가 165~195㎝, 몸무게는 55~92㎏, 가슴둘레는 신장의 2분의 1 이상인 자만 의경 시험에 지원할 수 있었다.

의경의 키, 체중 제한 규정은 1983년 의경 제도가 생기면서 도입됐으나 32년 만에 폐지됐다.

이에 따라 키가 165㎝가 안 되거나 195㎝를 넘는 이들도 의경에 지원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병무청 신체검사 결과 현역병 판정을 받은 사람도 신장미달 등의 이유로 의무경찰에 지원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단 의경은 현역병 대상자만 지원할 수 있어 159㎝ 미만이나 204㎝ 이상인 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은 의경에 지원할 수 없다.

경찰청은 앞서 2008년 경찰관 채용 시 남자 키 167㎝ 이상, 몸무게 57㎏ 이상, 여자 키 157㎝ 이상, 몸무게 47㎏ 이상 등으로 제한한 규정을 폐지한 바 있다.

개정안은 또 시력 기준을 '안경을 끼지 않은 시력 0.1 이상, 교정시력 0.8 이상'에서 '교정시력 포함해 시력이 0.8 이상'으로 완화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입법예고,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7~8월에 개정된 규정이 적용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현정기자

'성남 교복은행' 개소 이재정(가운데) 경기도교육감이 26일 경기도 성남시의회에서 '성남 교복은행'에서 학부모들과 교복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겨울을 녹이는
한잔의
부드러움
처음처럼
HAPPY WATER
100%
천연암반수
천연미네랄
처음처럼
부드러운 17.5도
HAPPY WATER
100% 천연암반수로 만든
부드러운 소주
경고 | 지나친 음주는 간경화나 간암을 일으키며 운전이나 작업중 사고 발생률을 높입니다